

경제재도약 첫 과제 '노동개혁'

朴대통령 대국민담화 발표
“청년 일자리 늘려야” 강조



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은 경제 재도
약을 위한 두

박근혜(사진) 대통령은 6일 후반
기 국정운영 계획과 관련해 “경제
재도약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노
동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천
명했다. 이를 위해 임금피크제와
고용 유연화를 공공기관부터 도입
해 민간으로 확대하겠다는 복안을
내놓기도 했다. | 관련기사 5면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경제재도약을 위해 드리는 말씀’
이란 제목의 대국민 담화에서 “우
리의 미래를 책임질 성장엔진이 둔
화되면서 저성장의 흐름이 고착화
되고 있고, 경제의 고용창출력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의 주역으로 다시 한 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에 대
한 대수술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노동개혁 없이는 청
년들의 절망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통도 해결할 수 없다”며 “청년 연
장을 하되 임금은 조금씩 양보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청년 일자

번째 과제로 공공부문 개혁을 들며
“공공기관의 중복지·과잉 기능을 핵
심 업무 중심으로 통합하겠다”
고 했다. 또 ‘교육 개혁’을 위해 자
유학기제, 공교육 정상화, 교육재
정개혁, 일·학습 병행제, 선취업 후
진학,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등 6개 개혁과제를 집중적으로 추
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금융 개혁’을 위해 보
신주의 관행에 머물고 있는 금융회사
의 영업 형태 변화를 약속하며, “금
융개혁이 이뤄지면 창업, 성장단계
를 거쳐 상장에 이르는 기업들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 자본의 공급과 회수가
선순환으로 이뤄지게 되고 이러한 자
본시장 생태계는 벤처 창업기업을 제
대로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
망했다.

/정의종·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靑, 13일 특사 임시국무회의 검토

최태원등 대기업 총수 거론
정치인은 사면 대상서 제외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단행되는
특별사면이 13일 이뤄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청와대는 특별사면
심의위원회를 위한 ‘원 포인트’ 임시 국무
회의를 13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정속 청와대 대변인은 6일 기
자들과 만나 13일 사면안 심의·의
결을 위한 국무회의 개최여부와 관
련, “구체적으로 확정하지는 않았
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치인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현재 사면 대상자에 대
해 공식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으
나,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재원 S
K그룹 부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본상 전 LG넥스원 부회
장 등 현재 실형 또는 징역유예 중
인 대기업 총수 일가가 사면 대상자
로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와 법무부는 내부적으로
최 회장 등을 사면 대상에 포함하
는 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법무부
는 오는 11일께 사면심사위원회를
소집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종·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물류는 대한민국에서!
한신협 공동기획-전남 ▶17

토·일요일자 신문 쉽니다
광복 70주년 경인일보
창간 70주년

자연스러운, 도시



도심 속 한가운데 자리잡고 있는 인천 송도국제도시 센트럴공원 내 꽃사슴 농장. 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이국적인 도심 풍경을 배경으로 뛰어놀고 있는 꽃사슴들을 보며 신기해하고 있다.

/임순석기자 sseek@kyeongin.com

금요와이드 | 힐링공간으로 진화하는 도심공원 ▶2·3

직장인 김모씨는 일과를 마친 후 종종 아내와 공원을 찾는다. 해가 지고 어둑어둑해진
공원에서 풍기는 풀 내음은 하루동안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절로 풀리게 한다. 김씨
는 이번 주말에는公園으로 아이들과 소풍을 갈 생각이다. 먼 곳으로 여행을 다녀오는 것
도 좋지만, 비용과 시간을 생각하니 엄두가 나지 않는다. 요즘 공원은 뜨거운 여름을 피할
수 있도록 분수대가 잘 구비돼 있다. 아이들은 분수대 속에서 즐거워한다. 아이들과 함께
돗자리와 김밥 등 간단한 도시락을 준비해 잔디밭에 누워있으면 어느 피서지 못지 않다.

향기 가득 식물섬·와자지겔 벼룩시장·텐트속 꿀맛 낮잠

따분한 쉼터 이미지 벗고 시민 위한 ‘복합문화공간’ 변신

최근 동네 공원이 문화·운동·레저 등을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변모해 가
고 있다. 과거 공원은 어르신들이 주로 찾고
산책 정도를 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요즘 공원은 그 모습이 확 달라졌
다. 주말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원을 찾아 축
구, 테니스, 배드민턴 등 각종 생활 스포츠
를 즐긴다. 또 일부 공원에는 캠핑 시설도
마련돼 있어 캠핑족들을 불러 모은다. 각종
문화·예술 공연도 공원에서 자주 열려 굳이
콘서트 장이나 공연장을 찾지 않아도 문화
공연을 맘껏 즐길 수 있다.

실제로 수원 광교호수공원에는 호수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어반레비, 분수대인
신비한 물너미, 조용한 물 숲, 향긋한 꽃
섬과 같은 인공 식물섬을 비롯해 국제 규
격의 인공암벽장, 공연 전문가 혹은 아마

추어 동호회가 무료 공연을 열 수 있도록
한 마당극장, 캠핑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안양 평촌중앙공원은 매주 토요일
마다 시민들이 자신들이 쓰던 물건을 파
는 벼룩시장이 열리고, 인천 송도 센트럴
공원은 이국적인 도심 풍경 속에서 다양
한 문화 및 레저 스포츠 체험을 할 수 있
다. 또 부천 상동호수공원에는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X-게임장이
있다.

과거의 ‘따분한’ 이미지에서 탈피한 공원은
이제 지역 시민들의 여가와 복지 증대를
위해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문화·스포츠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내가 살고 있는 곳
에 어떤 공원이 있는 지 주말에 한번 나가보
면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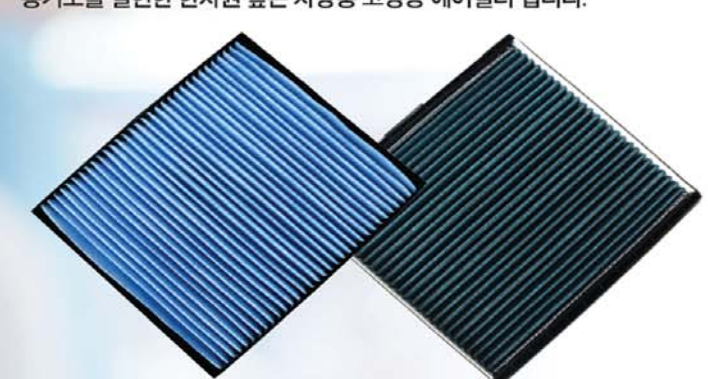
/신창윤·이원근기자 shincy21@kyeongin.com



자동차 항균필터의 새로운 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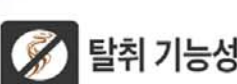
| Why SUPEX9 ?

하이브리드 바이탈 에멀전 에어필터는 30년간 크린룸, 수술실, 연구실 등에 사용되는 고성능 필터 생산으로 축적된 첨단 기술을 통해 개발되어 미세먼지와 악취의 차단, 항균, 항 바이러스의 탁월한 기능과 완벽한 통기도를 실현한 한차원 높은 차량용 고성능 에어필터입니다.



**미세먼지 차단 99.9%**

**항균 효과 99.9%**

**탈취 기능성**



SUPEX9 에어필터 전국 대리점 모집 안내

문의 : 어드로이트그로비스 자동차 필터 사업부 서울 02) 525-6249 안성 031) 8057-2118
모집 지역 및 관련 업종 : 전국 자동차 부품 판매 총판 및 지역 대리점, 유통 업체, 운송업체 사업주
*상세 내용은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뻔하다 생각했던 동네산책로서 마주한 ‘Fun한 일상’

경기·인천지역 공원들 ‘매력 업그레이드’

경기지역에 위치한 공원들은 각각 특색있는 모습으로 지역민들을 반긴다. 산책로와 몇 개의 운동시설 만을 볼 수 있었던 예년의 장소가 이제는 복합문화 시설로 탈바꿈했다. 특히 경기도와 인천시 관내 공원들은 각기 다른 모습과 볼거리로 시민들을 유혹하고 있다. 공원의 매력에 빠져보자.

토요 벼룩시장 분수쇼 피날레

■ 안양 평촌중앙공원

평촌중앙공원은 안양시청 맞은 편에 있다. 이 곳의 특징은 한 여름 더위를 날려줄 분수대다. 분수대에선 시민들이 아이들과 함께 나와 물놀이를 즐긴다. 돛자리와 먹거리를 준비해 아이들과 손 잡고 공원을 찾는 가족들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분수대는 6~8월까지의 평일 오전 11시~오후 1시, 오후 5~8시까지 운영되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후 1~8시까지 분수를 즐길 수 있다. 또 4·5·9·10월에는 오전 11시~오후 1시와 오후 5~7시,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후 1~7시까지다.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벼룩시장도 볼거리다. 벼룩시장은 시민들이 집에서 쓰지 않는 물건들을 갖고 나와 장사를 할 수 있다. 권다영(10)·권혁민(9) 오누이도 부모님과 함께 공원에 나왔다. 평소 쓰지 않는 장난감과 옷가지를 차려놓고 장사를 하고 있던 다영 양은 “지난해부터 이 곳에 오고 싶어서 부모님을 출렸다고 했고, 혁민 군도 “내가 내놓은 장난감이 가장 잘 팔린다”고 밝혔다.

삼둥이 명소 송도관 베네치아

■ 인천 송도 센트럴공원

송도 센트럴공원은 이국적인 도심 풍경 속에서 수상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인천의 대표적인 공원이다. 길이 1.8km, 폭 최대 110m의 물길(면적 6만3천 390㎡)을 따라 ‘수상택시’ ‘카누’ ‘카약’ ‘패밀리보트’ 등을 타고 송도 마천루 도심을 만끽할 수 있다. 이 곳은 최근 인기 예능프로그램에서 송도 주민 인배우 송일국씨와 세쌍둥이의 나들이 모습이 종종 보이며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

이 곳은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수상 레저스포츠를 즐기러 온 나들이객들로 늘 북적인다. 작은 유람선과 같은 수상택시는 가족들에게 인기다. 배터리로 가는 보트인 패밀리보트는 어린이도 운전할 수 있다. 5명을 기준으로 30분에 3만 5천원이다. 또 직접 노를 젓는 무동력 수상 레저스포츠인 패들링(카누·카약 등)을 체험할 수 있다. 2~3명이 타는 카누·카약은 친구나 연인들로부터 반응이 좋다. 3명 기준으로 50분에 2만5천원이다. 보트 위에선 채로 패들을 저어 나가는 신종 레포츠 SUP(Stand Up Paddle Board)도 눈길을 끈다. 60분에 1만원을 받는다.

수상 레저 외에도 공원에는 숨은 볼거리가 많다. 최근 문을 연 한옥호텔 ‘경원재 엠베서더 인천’의 앞뜰은 아늑한 분위기를 즐기는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주변 문화예술 공간인 트라이볼 등을 둘러 전시와 공연도 즐길 수 있다.

시원한 물썰매장 인기만점

■ 인천대공원

인천 남동구에 있는 인천대공원은 습지원·숲속도서관·어린이동물원 등의 테마 공원이 있다. 야외음악당·사계절 썰매장 등의 시설도 설치돼 있다.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것은 사계절 썰매장이다. 여름에는 물썰매를, 겨울에는 눈썰매를 탈 수 있다.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운영되는데, 여름 시즌에는 6시에 문을 닫는다. 다만, 금요일과 토요일은 오후 7시까지 한 시간 더 연장한다. 성인은 7천 원, 청소년은 5천 원, 어린이는 4천 원이다. 물썰매장 이용시 수영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또 인천대공원 한 편에는 365일 항상 이용할 수 있는 ‘너나들이 캠핑장’도 마련돼 있다.

개항·한국전쟁 역사 오롯이

■ 인천 자유공원

인천 중구에 자리 잡은 이곳은 한국 최초의 서구식 공원이다. 자유공원의 조성 시기는 1888년으로 탑골공원보다 9년 앞선다. 자유공원 정상에는 한미 수교 100주년 기념탑이 있고 맥아더 장군 동상도 서 있다. 또 한국전쟁 당시 학도의용대가 일어난 것을 기리는 호국기념탑도 세워져 있다. 특히 정상에서는 인천 앞바다와 항구 도시 인천을 느낄 수 있는 내항을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다. 인근에는 차이나타운과 100여 년이 된 근대건축물이 남아있는 개항장 거리도 있다.

은은한 야경 트레이드 마크

■ 수원 광교호수공원

광교호수공원은 기존의 원천유원지를 광교택지개발사업에 포함시켜 산과 저수지의 자연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아름다운 수변공간인 어반레버와 함께 6개의 테마(어반레버, 마당극장, 신비한 물너미, 인공암벽장, 조용한 물 숲, 향긋한 꽃 섬)를 가진 공원으로, 국내 최대 도심 속 호수공원이다. 국토교통부 선정 2012년 조경대상·2014년 경관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신비한 물너미’는 더운 여름철 아이들의 물놀이장으로 많이 찾는 곳으로 원형광장에 바닥분수가 솟아 오른다. 또 거울숲·물보석분수·안개분수 등 9개의 분수시설도 어우러져 있다. 호수 주변 1.6km의 길이로 설치된 어반레버는 호수를 가까이 조망하면서 산책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야간에 볼 수 있는 은은한 경관조명은 이 곳의 트레이드 마크다. 주변 인공암벽장은 국제규격으로 만들어져 전문 선수들의 훈련 장소로도 사용된다.

X-게임 애호가들 연일 북적

■ 부천 상동호수공원

이 곳은 인라인 스케이트·스케이트보드 등을 즐기는 X-게임장이 설치돼 있다. 또 상동호수공원 옆 고가 밑에 위치한 해그늘체육공원 X-게임장도 엑스트림 애호가들로 북적인다.

지난 2008년 공원 내 농업공원이 조성돼 물레방아를 비롯 생태연못, 논과 채소밭, 우물, 초기집 등이 독특하다. 스케이트 보드를 타는 손혁준(13) 군은 “이곳은 X-게임을 즐기러는 사람들이 항상 몰린다”면서 “요즘은 남학생뿐 아니라 여학생들도 스케이트보드를 즐겨한다”고 말했다. 또 임현성(9) 군도 “이제 보드를 배운 지 6개월 됐다. 3~4시간 정도 타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있다”고 했다.

45m 높이 번지점프대 ‘짜릿’

■ 성남 율동공원

성남 분당동 일원에 위치한 율동공원은 자연의 맛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번지점프와 분수대, 수변 산책로와 책테마파크 등 현대적 시민 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45m 높이의 번지점프대는 타 시·도 주민들도 찾아 만큼 인기가 높다. 또 번지점프대 옆 호수 가운데 설치된 103m까지 올라오는 분수대도 멋진 풍경을 연출한다. 인천에서 번지점프 체험을 하기 위해 공원을 찾은 대학생 김윤주(21·여) 씨는 “방학을 맞아 언니와 함께 율동공원에 놀러 왔다. 소리를 지르니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특히 이곳은 국내 최초로 책을 테마로 공원을 조성했다는 점도 특징이다. 기존의 책을 읽는 도서관의 개념에서 벗어나 상상력과 독서의욕을 고취시키는 창조적인 공간이다.

클래식·물기둥의 커플 댄스

■ 용인 동백호수공원

용인 동백호수공원은 생태 개념이 도입된 호수공원이다. 인공호수의 수질 개선을 위해 호수 주변부에 정화력이 높은 갈대·부들 등 정수식물과 소나무 등을 심어 녹지 공간을 조성했다.

이 곳의 가장 큰 특징은 국내 최고 수준의 음악 분수다. 클래식 음악과 물기둥의 조화는 시민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임송재·이원기 기자

lw933@kyeongin.com

사진/임순서·강승호 기자

kangsh@kyeongin.com

데이트·캠핑·생활체육·레저까지... 인생의 '休'를 찾다



화성시 동탄 센트럴 파크에서 시민들이 음악 분수 쇼를 보며 무더위를 식히고 있다.

/임영수기자 pplys@kyeongin.com



집에서 못다한 대화 풀어내

■가족·연인들은 힐링의 공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공원의 이미지는 '힐링'이다. 시끄럽고 복잡한 도심 가운데 나무와 숲, 물 등이 조성된 공원은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쉼터다. 가족·연인들은 함께 공원을 찾아 지친 마음을 달랜다. 시골벽적인 도시를 떠나 조용함이 있는 공원에 오면 어느 휴가 못지 않다는 게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얘기다. 안양에 사는 직장인 민진아(28·여)씨는 "일은 서울에서 하고 있지만 주말에는 안양의 공원을 자주 찾는 편이다"라면서 "남자 친구와 함께 공원을 걸으며 데이트를 하고 혼자 조용히 나와 산책을 하며 생각을 정리하기도 한다. 또 가족들과 함께 공원을 찾을 때에는 그간 하지 못했던 얘기들을 풀어내는 공간이 된다"고 공원 활용법에 대해 설명했다.

산책을 따라 자전거 도로도 함께 만들어져 있다. 자전거를 타고 공원을 한 바퀴 돌고 나면 상쾌함이 느껴진다. 평소 자전거 타기를 좋아한다는 이원석(27)씨는 "공원도 이제는 숲과 나무가 많아 자전거 타기가 더 재미있어졌다"면서 "자전거 코스를 다니는 것도 좋지만 공원을 돌아보는 자전거 타기도 나름 매력 있다"고 소개했다.

광장 체조·댄스 어깨춤 들썩

■이제는 생활체육도 배운다!

공원에선 생활체육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보통 아침마다 진행되는 광장 체조 프로그램이 바로 그것이다. 현재 도내에는 약 20곳의 공원에서 생활체육광장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시·군생활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가 이른 아침 또는 저녁 시간에 공원에 모인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건강체조, 광장체조, 재즈댄스 등을 지도한다. 물론 모든 수업료는 무료다. 배우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환영이다. 또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점, 전문적인 강사로부터 수업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생활체육 프로그램만이 갖는 매력이다.

'가족 캐러밴' 이국적 풍경

■캠핑도 즐기세요!

캠핑도 요즘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공원 트렌드다. 경기 지역에는 수원 광교 호수공원, 인천대공원, 부천 여월농업공원 등 다양한 캠핑 시설이 있다. 부천 여월농업공원 캠핑장은 25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축구장, 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과 주차장, 세척장, 화장실, 샤워장 등의 편의 시설이 갖춰져 있다. 이용 요금은 1만5천원이다. 예약은 인터넷을 통해 부천시 통합예약서비스를 활용하면 된다. 깔끔한 시설과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곳으로 이미 정평이 나 있다. 수원 광교 호수공원은 가족캠핑장을 설치했다.오로지 가족 단위의 캠핑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광교 호수공원 가족 캠핑장은 4인용 가족 오토 캠핑장 26면, 4인용 가족 캐러밴 7면이 설치돼 있다. 화장실과 샤워실, 식기세척장, 전기콘센트 등 부속시설도 마련돼 있어 가족단위의 캠핑족들이 즐기기에 최적의 공간이다. 수원시에 주소를 둔 사람은 사용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고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3자녀 가정 등은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숲속도서관은 '마음의 양식'

■문화 생활에 톡톡튀는 아이디어까지!

공원은 스포츠와 레저 뿐만 아니라 문화 행사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도 발전했다. 용인 동백호수공원 광장은 주말에 무용, 재즈, 음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린다. 오는 15일에는 한국다문화 예술인 협회 용인시지부의 색소폰 연주가

다양한 기능 갖춘 공원들

공원의 이미지가 새롭게 변화하는 만큼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활용법도 독특하다. 공원은 이제 도심 속에서 꼭 필요한 힐링 장소가 됐다.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공원을 찾아가는 것도 좋지만, 다른 시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볼거리와 건강 프로그램도 챙겨본다면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게이트볼·농구 등 만능시설

■스포츠 시설은 기본!

공원은 단순히 산책을 할 수 있는 장소만은 아니다. 각각의 공원마다 농구장, 축구장, 배드민턴장 등 체육 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또 어르신들을 위한 게이트볼 장도 공원 내 설치돼 있어 건강을 지키는 훌륭한 체육시설로도 활용된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있어 공원은 이제 만남의 장소가 됐다. 맘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진 대신 이들은 공원에 삼삼오오 모여 농구, 자전거 타기, 익스트림 스포츠 등 다양한 스포츠를 즐긴다. 물론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이 있지만, 야외에서 운동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수용하기에는 공간이 좁을 수밖에 없다. 10대들은 친구들과 함께 공원에 나와 운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부천 상동호수공원에서 스케이트 보드를 즐기고 있다는 김도현(14)군은 "스케이트를 배운 지 1년6개월 정도 됐다"면서 "친구들과 함께 타다 보니 더 재미있고 스트레스도 풀려 좋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대부분의 공원들은

펼쳐지고, 16일에는 아름색소폰 동호회에서 색소폰, 태평소 등의 연주가 진행된다. 22일에는 2015 용인시 청소년올림픽마당 '무지개를 품다'가 개최돼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수원 광교호수공원에선 수원YMCA가 함께 하는 생태교육 프로그램도 열리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유아-초등학생-청소년-성인-가족 단위로 나눠 광교 호수공원의 숲과 생태에 관한 교육·문화 모임을 제공한다. 인천대공원의 숲속도서관은 2010년 9월 문을 열었다. 일반적인 도서관과는 달리 공중전화 부스 형태로 만들어진 야외서가 시설로, 시민들로부터 자발적으로 기증받은 책을 모아 만들어졌다. 공원 곳곳에 설치됐고 총 5개소를 운영 중이다. 공원 내에서 자유롭게 본 후 제자리에 놓으면 된다.

/임승재·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수원시 광교 호수 공원 캠핑장에서 어린이들이 배드민턴을 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강승호기자 kangsh@kyeongin.com



핵심 키워드 ‘개혁’·‘경제’… 절박한 심정 국민에 호소

박대통령 대국민담화 분석

박근혜 대통령의 6일 대국민담화의 핵심 키워드는 ‘개혁’과 ‘경제’로 분석됐다.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국민들이 이 대목에 집중해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화려한 수사를 고급적 자제하고 담담하게 글을 써내려 갔다. 한 참모는 “세간의 관심사인 경제인 특별사면이나 정치는 물론 대북정책, 대일의 교에 대한 내용조차 담화에 등장하지 않은 것은 국민들이 노동개혁에 대한 절절한 호소에 귀를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라고 말했다.

24분에 걸쳐 이뤄진 대국민담화 동안 ‘경제’ 단어는 총 37차례, ‘개혁’은 33차례 등장했다. 또 29차례에 걸쳐 ‘국민’이란 말을, 14차례에 걸쳐 ‘청년’이란 단어를 사용하며 청년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주역으로 다시 한 번 도약하기 위해서 경제 전반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하다”며 그 수단으로 4대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대국민담화의 방향이 키워드 힛수를 통해서도 그대로 비쳐졌다.

박 대통령은 담화 첫머리에서 일단 현재 대한민국이 대내외적으로 ‘고질적이고 구

경제인 특사·정치등 관심사 배제

경제 재도약위해 ‘대수술’ 불가피

실업급여 평균임금 60%로 올려

노사정위 조속재개 명분 만들어

공공개혁, 타분야 변화 선도 강조

조적인 문제’에 둘러싸여 있다고 진단, “경제 전반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하다”고 운을 뗐다.

대수술의 첫 번째 대상은 역시 노동분야로, “우리의 딸과 아들, 국가의 미래를 위해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며 “노동개혁은 일자리”라는 공식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연내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 등을 약속하는 한편, 공공예산 개혁을 통해 매년 1조원 이상 재정을 절약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기득권층의 희생과 고통분담을 내세웠다.

특히 노동계의 이탈로 한동안 멈춰선 노사정위 재개를 촉구하면서 한국노총과 민



후반기 국정운영 발표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평남

주노총이 테이블로 돌아올 명분을 만들었다. 박 대통령은 “실직한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현재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로 올리고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현행(90~240일)보다 30일을 더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그간 노동계의 요구사항 중 하나였다. 두 번째 과제인 공공개혁에 대해 박 대통령은 “공공개혁은 국가 시스템을 바로잡는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자 다른 분야의 변화

를 선도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 2년 반동안의 1단계 개혁성과를 설명한 뒤 “공공기관의 중박 과잉 기능을 핵심업무 중심으로 통합해 국민에게 최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봉사하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말했다.

공공개혁은 최우선과제로 내세운 노동개혁 성공 여부의 리트머스 시험지 역할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임금체계를 성과에 따라 개편하고 올해 내에 모든 공공

기관의 임금피크제를 실시한다는 등의 약속은 모두 공공부문에 대한 시스템 개혁을 노동개혁의 ‘본보기’로 삼겠다는 뜻이다.

이처럼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테니 민간 부문이 따라와 달라는 요청이다.

이날 박 대통령은 연설문의 3분의 1가량을 노동개혁에 치중했다. 새로운 내용이 많지는 않았지만 ‘국민에게 힘든 길이 될 수도 있다’ ‘한배를 탄 공동운명체’ ‘우리

의 딸과 아들을 위해서 결단을’ 등의 표현을 수 없이 반복하며 국민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시도를 이어갔다.

박 대통령은 “개혁은 특정 집단이나 계층, 세대를 위한 것이 아니며 온 국민과 후손들의 미래가 달린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오늘 저는 절박한 심정으로 모든 경제주체와 국민의 협력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정의종·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여 “4대 개혁… 올바른 국정방향 제시”야 “노동자 희생만 강요하는 4無 담화”

與野 반응

박근혜 대통령이 6일 내놓은 대국민담화에 대해 여당은 ‘올바른 국정 방향 제시’, 야당은 ‘노동자만 희생하라는 4무(無) 담화’라는 반응을 내놴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국회브리핑을 통해 “국가 체질개선과 경제제약을 위해 공공·교육·금융·노동 등 4대 구조개혁에 매진하겠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표명된 것이라고 본다”며 “전국단위 선거가 없는 올해가 국정운영의 골든 타임이라는 점에서 적기에 올바른 국정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특히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공감한다”며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능력과 성과에

따라 채용과 임금이 결정되는 유연한 노동시장이라야 청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또 “박 대통령이 제시한 4대 구조개혁은 우리 경제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며 “정차권도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 야권도 경제 활성화와 경제제약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초당적인 자세로 협력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원 해킹 의혹과 메르스 사태 관련 대국민사과’·‘국민과의 소통 의지’·‘경제실폐에 따른 반성’·‘경제제약을 위한 실질적 방안’ 등이 없었다고 지적하며 ‘4무 담화’라고 비판했다. 또 “노동자들에게만 양보와 타협을 촉구하고 대화

를 종용하는 것은 협박이나 다름없다”며 “대통령이 앞세운 노동개혁은 노동자만 희생하라는 노동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유은혜 대변인은 국회브리핑에서 “비정규직, 사내 하청, 고용 외주화 등 다수 국민이 고통 받고 있는 문제를 실업급여 확대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실업급여를 늘려줄 테니 쉬운 해고를 받아들이라는 것처럼 들린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이 노동개혁 방안으로 제시한 임금피크제 도입, 실업급여 확대 등을 두고 “경제위기의 본질을 왜곡했다”고 강조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오늘 대국민담화는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담화가 아니라 뒷사람이 앞사람에게 지시하는 훈시의 자리였다”고 꼬집었다.

/김순기·송수은기자 islandkim@kyeongin.com

‘국정원 해킹의혹 규명’ 전문가 기술간담회 무산

국정원 해킹 의혹 규명을 위해 여야가 6일 열기로 합의했던 국정원과 전문가 간 기술간담회가 무산됐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시민단체와 개최한 ‘정보 인권개선 시민사회 간담회’에서 “오늘 오후 2시 간담회가 무산됐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자료요구라는 근본요구가 국정원에 의해 두 번이나 거부된 데 원인이 있다”며 “(자료요구는) 정치 간담회, 오프 테러리 간담회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요구를 한 것이다. 조건

이 갖춰지면 광복절이든 추석이든 일요일이든 간담회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여당을 겨냥해 “사찰의 근본 문제에서 잠시 눈을 돌리기 위한 속임수로 기술간담회 문제를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정보지킴이 위원장은 “이런 간담회는 하더라도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고 진상규명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자료 요구 등 진상규명 작업을 계속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안 위원장은 “장외 투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저희는

저희대로 국회에서 할 일을 찾고 검찰수사 부분도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이 근거 없는 의혹 부풀리기가 드러날까 봐 간담회에 불참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간담회 일정을 재조정하거나, 간담회에 앞서 국정원 현장방문을 먼저 하더라도 여야가 합의한 일정을 진행해서 하루빨리 국정원 해킹 의혹을 종식시키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조원진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해킹 의혹과 관련해 오늘 예정된 간담회가 사실상 무산됐는데 빠른 시간 내 국정원과 전문가 간 기술간담회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순기·송수은기자 islandkim@kyeongin.com

양보·타협위해 野와 편안한 소통



>5<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



새누리당 김영우(연천·포천) 수석대변인이 방미 성과와 지역 현안해결 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영우 의원실 제공

새누리당 김무성 체제 2기 당직 인선에서 유일하게 유입된 김영우(연천·포천) 수석대변인은 김무성 대표가 많이 아끼는 소장파 의원이다. 이번 인선이 내년 총선을 겨냥해 수도권 출신을 대거 중용하는 인사였지만 김 대변인의 합리적이고 원만한 성품이 김 대표의 마음에 속 들었다는 게 정가의 분석이다.

김 대변인 역시 유입된 이유로 “야당과 언론인들과의 편안한 소통이 긍정적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김 대표의 방미 수행단에 참여했

던 그는 귀국 후 가진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사정을 인정하듯 “김 대표가 (유입시키면서) 정치는 양보하고 타협해서 궁극적으로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야당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그는 당내 초·재선 의원 중심으로 ‘혁신연대모임’을 주도하는 소장 개혁파의 원으로도 정평이 나 있다.

이번 방미 성과에 대해 “2005년 이후 10년 만에 이루어진 정당 외교로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의미를 재확인하는 계기

가 됐다”고 평가했다. “미국 정치계 주요 인사들과 한미동맹 강화, 북핵 문제, 남북관계 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아베 일본정부의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는데 미국 정부와 정치권의 협력을 당부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수석대변인으로 당 대변인실을 이끌고 있는 그는 이제 지역에 내려가 현안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마무리할 사업과 관련, “포천전철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전반기 사업에 포함하

포천전철 3차국가철도망으로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법등

산적인 사업 총선전 ‘마무리’

고 포천에서 가평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국지도 56호선 수원산 고개 터널 확·포장 사업’도 제4차 국지도 57개년 계획에 반영시킬 계획”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세종시에 자리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한국교통연구원 등을 찾아 장·차관과 실무진들을 직접 설득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또한 연천 원점선 전철의 일부 구간을 교량화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을 추진하는 방안도 임기내 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그는 특히 “사적장과 탄약고로 피해받고 있는 지역을 위한 군사시설 주변 지역지원법이 국방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조속히 논의돼 19대 국회에서 결실을 보아야 한다”며 K-디자인빌리지·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임진강 평화 문화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정의종기자 je@kyeongin.com

도화지구 기업형 임대주택 현장방문 간담회



새누리당 홍일표(인천 남갑·사진) 의원은 6일 인천 남구 도화지구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현장 방문을 추진 현황을 점검한 후 인천

도시공사 관계자, 주민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도화구역에서 추진 중인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은 8년간의 장기임대 기간 동안

임대료 상승률을 제한해 서민 부담을 줄이는 제도다. 총 2천105세대의 기업형 임대주택이 들어올 계획이다. 또 준공공임대 520세대와 공공임대 548세대를 합쳐 총 3천173세대가 도화지구로 자리잡게 된다.

홍 의원은 “도화지구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은 낙후된 구도심 지역의 활성화를 이끌고 중산층 주택난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지난해 법인세 감면액 재벌기업에 집중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오산·사진) 의원은 6일 “지난해 전체 법인세 감면액 8조7천억원 중 상위 1% 법인에 7조1천억원(81%)이 집중된 반면 하위 50%에 대한 조세감면액은 29억원(0.0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해 200조원의 순이익 중 상위 1%

법인의 몫은 139억원(70%)이며 하위 50%의 순이익은 8조6천억원(4.3%)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이에 대해 “전체 이익의 70%를 차지하는 상위 1% 법인이 전체 감면액은 70%보다 더 많은 81%의 혜택을 본다는 의미”라며 “법인세 감면액이 상위 1% 법인에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지금도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 충분히 투자 여력이 있는 상위 재벌기업에는 조세감면 혜택의 대부분을 삭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순기기자 islandkim@kyeongin.com

“국정원직원 車 부검결과 전 유족에 넘겨”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인천남동갑·사진) 의원은 6일 “경찰이 국정원 해킹 의혹과 연루된 임모과장이 숨진 채 발견된 마티즈 차량을 부검

결과가 나오기도 전 사망 당일 유족에게 넘겼다”며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임 과장

이사망한 지난달 18일 현장검사가 끝난 직후인 오후 8시 30분께 유족에게 마티즈 차량 인계의사를 전달했다. 이는 부검을 실시한 19일보다 하루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부검 결과서를 회신받은 20일보다는 이를 전으로, 경찰이 부검 결과도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차량을 넘긴 것이다. 박 의원은 “부검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유족에게 차량을 인계한 점은 적언치 않다”고 밝혔다. /김순기기자 islandkim@kyeongin.com

정규직 일자리 창출·건전한 소비에 ‘세제혜택’ 보상

정부 2015 세법개정안 발표

청년 1명당 최대 500만원… 체크카드 공제율 인상

업무용 차량·종교인·사행산업등 과세체계도 손질

정부가 침체에 빠진 국내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6일 ‘2015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세제개정안은 경기부양을 위해 세제지원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소비 진작에 초점을 맞췄다.

■ 일자리 늘리는 기업에 세금 혜택 준다

세법개정안에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전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하면 이에 비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청년고용 증대세제’다.

정부는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과 중견기업까지 청년고용 증대세제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내년부터 60세 청년 의무화가 전면 시행되면 앞으로 수년간 ‘청년고용 빙하기’가 예상되는 만큼 청년고용 증대세제를 올해 바로 도입해

2017년 말까지 3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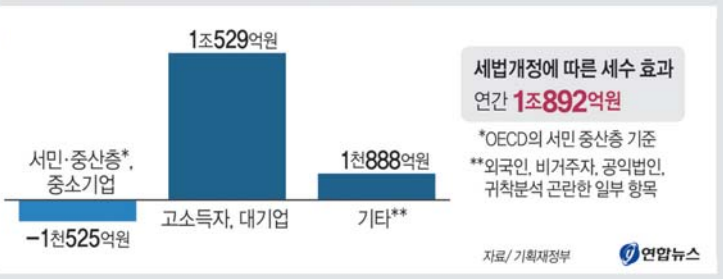
중소·중견기업은 1인당 500만원을 공제해 주고 대기업은 250만원으로 지원수준을 차등화시켰다.

정부는 청년고용 증대세제 도입으로 기업들은 매년 1천200억원의 세 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하고 3만5천여명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고령자·장애인 등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율도 50%에서 70%로 인상해 오는 2018년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신규로 5명 이상 고용하는 기업

2015 세법개정안 대상별 세부담



에 대해서는 과세이연 범위를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하고, 신규 창업 뿐만 아니라 사업 확장, 업종 추가 등의 경우에도 적용 가능하게 했다.

■ 건전한 소비에는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가계부채 문제 등을 고려해 건전한 소비를 많이 할수록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을 50%로 1년간 인상한다. 단 1천1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를 고려해 신용카드 공제율은 인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대형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과 녹음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폐지하고 명품가방 등 고가 사치품에 대한 개소비세 부과 기준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렸다.

메르스로 인해 타격을 받은 음식점업 사업자에 대한 농수산물의 매입세액 특례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매출액에 따른 공제 한도도 상향 조정한다. 농어민의 원활한 영농생계를 위해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하고, 영농자녀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 ‘축사용지’도 포함해 축산농가의 원활한 기업 승계도 지원한다.

■ 과세사각지대 줄인다

논란이 돼온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이용에 대한 과세 방안도 공

개됐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승용차에 한해 관련 비용의 일정 비율을 인정하면서 운행일지로 입증된 사용비율만큼을 추가 비용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기업로고(탈부착식 제외) 부착 차량은 운행일지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비용을 100% 인정해주지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법인은 관련 비용 전액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개인사업자는 입증된 업무사용비율만 비용으로 인정받는다. 종교소득 과세체계도 정비한다.

종교인의 소득을 소득수준에 따라 필요경비율을 20~80%로 차등해 누진 공제하도록 했다. 내년 1월부터 종교단체가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종교인이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밖에 경마·슬롯머신 등에서 발생한 당첨금 등에 대한 과세법위도 확대되며, 경마와 경륜 등의 사행산업 장외발매소 입장료에 붙는 개별 소비세도 100% 인상된다.

/김종화기자 jhkim@kyeongin.com

예금·적금·펀드 ‘만능통장’ 도입

ISA, 200만원까지 비과세

내달 국회제출·내년 출시

하나의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는 ‘만능 통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Individual Savings Account)가 2015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됐다.

ISA는 기존보다 높은 세제 혜택으로 저금리 시대에 국민들의 자산 증식을 돕겠다는 취지로 도입돼, 보험을 제외한 예금과 적금·펀드·파생결합상품 등을 모두 하나의 계좌에 넣을 수 있다.

특히, 연간 2천만원까지 5년간 적립할 수 있고 만기 인출 때 이자·배당소득 등 모든 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순수익에서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0만원을 초과

한 이익에 대해선 9%의 분리과세를 적용하나 5년간 계좌를 유지해야 한다.

가입자격은 직전년도 과세기간에 근로·사업소득이 있으면 1인당 1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신규취업자 등은 원천징수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확인과정을 거치면 개설이 가능하다. 소득이 있는 15~29세 또는 일정소득 이하 가입자의 의무가입기간은 3년, 가입 한도는 연 2천만원으로 5년간 1억원이다.

기획재정부는 ISA가 포함된 세법 개정안을 일괄 예고해 차관·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달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개정안이 하반기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초부터 은행 증권 보험사 등을 통해 판매할 예정이다.

/yayajoon@kyeongin.com

MY PORTABLE PORTFOLIO

감각적인 디자인과 환상적인 속도의 만남
더 빠르고, 더 안전하고, 더 세련된 포터블 SSD를 경험해 보세요!

삼성 포터블 SSD T1
samsung.com/T1

SAMSUNG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회장·박원준) 회장단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제1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추천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하여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상품 중 건설공사 업역침해의 소지가 있는 품목에 대해 반대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의 폐지의견을 전달했다.

“관급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 폐지를”

전문건설협 “시공·납품업체간 책임분쟁 원인” 주장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회장단은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추천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해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제도 폐지를 요구했다.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란 중소기업청에서 3년마다 지정하는 공공 공사용 자재에 한해 해당 기관이 직접 구매토록 한 제도다. 당초 중소기업청의 판로지원을 위해 마련됐으나, 일부 납품업체

가 시공에까지 관여하면서 건설업체의 영역을 침해하고 있다는 논란이 계속됐다.

박원준 회장은 “관급 공사용 자재는 시공업체와 자재 납품 업체 간 자재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해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자재납품 위주의 공사 발주가 된다면 전체적 공정에 차질을 빚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전통시장 그랜드세일 380여곳 ‘참가대기표’

소상공인진흥공단 접수 마감

10일 250곳 발표 세차레시행

전국 250여곳 전통시장이 참여하는 ‘전통시장 그랜드세일’ 행사가 (경인일보 7월 31일자 6면 보도) 뜨거운 열기 속에 접수를 마감했다.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5일 마감된 전통시장의 세일 행사 참여 접수 결과, 전국 380여곳이 참여 의사를 희망했다고 6일 밝혔다.

당초 공단 측은 300곳 정도의 접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으나 마감 최종일 신청이 몰리는 등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상대적 피해가 컸던 평택과 수원지역 등의 전통시장에서만 100여곳이 대거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청은 메르스 발생지역 중심의 시장을 우선 선정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선정 시장은 할인품목과 할인폭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8월과 9월, 11월 등 3차례에 걸쳐 실시 세일에 참여하게 된다.

이번 행사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의 코리아그랜드세일 행사와 연계된 점을 감안, 선정 250여곳의 시장외에도 전국 주요 전통시장 대부분이 세일 행사에 참여하게 된다.

행사가 본격화 될 경우 휴가철부터 추석 명절, 김장철까지 이어지는 장기세일 체제로 전환돼 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는 “10일째 참여 시장을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침체됐던 전통시장의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선미기자 ssunmi@kyeongin.com

주간 생필품 가격비교 <8월 6~12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무 일반 1개	1,650원	1,800원	2,380원
배추 일반 1통	2,280원	2,250원	3,800원
상추 1봉	1,450원	1,500원	2,000원
자반고등어 1마리	2,800원	2,900원	1,900원
우유 일반 1개	1,870원	1,700원	1,700원
돼지고기 삼겹살 100g	2,120원	2,180원	2,200원
국내산 100g	2,620원	2,650원	2,200원
소고기 양념 국내산 100g	6,700원	10,500원	7,800원
달걀 특란 30개	6,200원	6,150원	6,300원
쌀 일반 20kg	41,760원	44,500원	44,340원
방울토마토 100g	637원	800원	842원
참외 100g	562원	460원	750원

LOTTE Mart Homeplus eMart

‘마음의 짐’까지 들어주다

‘팔방미인’ 캐리어·배낭

스포츠중계를 시청하다 보면 멀티 또는 유틸리티 플레이어란 단어를 종종 접하게 된다. 남다른 센스와 운동 능력으로 여러 개의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팀의 입장에서 없어서 안 될 그야말로 소중한 존재들이다.

여행이나 출장 시 사용하는 캐리어나 배낭 중에도 ‘팔방미인’들이 존재한다. 일단 길에 나서면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상황들과 조우하게 되므로 그때그때 발 빠르게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함이다.

캐리어 후면 힙벨트 장착

여행·출장때 편의성 높여

일부 분리돼 수납도 우수

다기능 제품 소비자 유희

오스프리(OZ)의 오존 컨버터블(OZ ONE CONVERTIBLE) 시리즈는 기존 오존 라인에 배낭의 편리함을 더한 캐리어다. 비결은 캐리어 후면 대형 포켓 속에 감춰진 하네스와 힙벨트 등 서스펜션 시스템. 승강기가 없는 계단과 맞닥뜨리거나 보다 빠른 이동이 필요한 경우 활용하면 무척 편리하다.

꼭 필요한 물건만 수납할 수 있는 데이팩 시스템 역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장점 중 하나다. 캐리어와 지퍼로 연결된 전면부 수납공간을 분리해 소형 배낭으로



캐리어 후면에 하네스와 힙벨트 등 서스펜션 시스템을 갖춘 ‘오존 컨버터블’.

사용할 수 있다. 50L와 70L 두 가지 제품이 소비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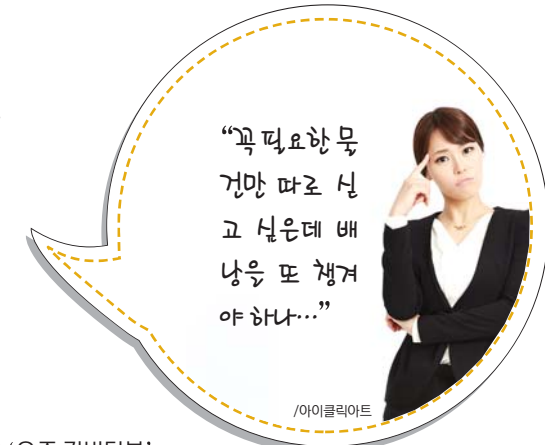
앞서 오존 컨버터블이 캐리어에 배낭 시스템이 추가된 형태라면 파포인트(FARPOINT) 시리즈는 메인 배낭에 소형 배낭을 더한 격이다. 40L, 55L, 70L 제품이 출시되고 있는데 이 중 55L와 70

L 배낭 전면 수납부를 분리해 보조 배낭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가벼운 무게와 효율적인 수납시스템을 갖춘 파포인트 시리즈는 전 세계 곳곳을 누비는 여행 마니아들에게 이상적인 선택이다.

캐리어보다 배낭을 선호한다면 포터(PORTER) 시리즈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노트북과 태블릿처럼 전자기기 사용이 많은 이들을 위해 따로 수납공간을 마련했다. 30L, 46L, 65L 세 가지 용량이 시장에 나와 있고, 가벼운 트레킹에서부터 도심 속 비즈니스 용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다.

“승강기는 없고 계단이 많다는데 무거운 캐리어를 어떻게 들고 다니지...”

“꼭 필요한 물건만 따로 넣고 싶은데 배낭을 또 챙겨야 하나...”



상생 걸음 내딛는 아모레퍼시픽

오산시 사회적경제기업들과 구매 연계·지원

국내 대표 뷰티그룹인 아모레퍼시픽이 오산시와 함께 사회적경제기업과의 ‘유통 상생’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오산지역 사회적기업들과의 구매 연계를 통해, 해당 기업의 자생

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6일 아모레퍼시픽과 오산시에 따르면 최근 오산시청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구매 연계 지원을 위한 설명회를 갖고, 상생을 위한 첫 걸음을 뒀다.

설명회에는 오산지역 대표적 사회적경제기업인(주)에코바이오, (주)만나, 잔다리마을공동체 농업회사법인(주) 등 11개 업체가 참여했다.

오산지역 기업들은 이 자리에서 아모레퍼시픽 측에 기업 설명은 물론 판매제품을 소개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앞으로 자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오산지역 사회적기업의 생산품 구매 등을 독려할 예정이다.

특히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유통망을 지닌 아모레퍼시픽의 자산을, 오산지역 사회적기업이 공유할 수 있을 지도 관심사다.

이홍진 오산시경제문화국장장은 “오산시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이 높다”며 “아모레퍼시픽과 사회적경제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오산/김태경기자 mrkim@kyeongin.com

좋은 물건 나누고, 이웃 情도 나누고

아브뉴프랑 광고 ‘플리마켓’

주민 포함 80개팀 참여 열기

직접 만든 잼·건어물등 인기

아브뉴프랑 광고점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상설 플리마켓’을 개최, 큰 호응을 얻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주말(1~2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아미존 후면부 일대에서 진행된 플리마켓에는 총 80팀이 참여했다.

의류, 방한제, 핸드메이드 제품, 액세서리, 쿠키 등 다양한 품목들이 마련돼 아브뉴프랑을 찾은 고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특히 직접 만든 수제잼과 수제건어물, 수제 밥가루, 수제꽃차 등은 젊은 주부들이 앞다퉈 구매했다.

아브뉴프랑 광고는 참여팀을



아브뉴프랑 광고점에서 지난 1~2일 진행된 플리마켓.

/아브뉴프랑 제공

‘핸드메이드’, ‘세컨핸드(중고제품)’, ‘아트/체함’ 세 종류로 구분해 모집했다. 중고제품의 경우 사용하던 접시나 소품, 의류, 가전제품 등을 인근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플리마켓 특성을 살리기 위해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지는 제품은 판매를 금지시켰고, 참가자들이 낸

소정의 참가비는 수원시에 전액 기부한다는 계획이다.

아브뉴프랑 광고점 관계자는 “7~8월에 걸쳐 열린 플리마켓 모두 주민들과 고객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며 “앞으로 플리마켓이 아브뉴프랑의 대표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선미기자 ssunmi@kyeongin.com

그랜드 하얏트 인천 ‘미각 여행’ 프로모션

와인+프랑스 요리 콘셉트

오크우드 ‘핫 서머 쿨 비어’

그랜드 하얏트 인천이 28일까지 ‘레스토랑 8로 떠나는 미각 여행’ 프로모션을 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그랜드 하얏트 인천 이스트 타워 1층의 레스토랑 8에서 진행하며, ‘여름 와인과 함께 즐기는 프랑스 전통 요리’가 콘셉트다.

제공되는 요리에는 달팽이, 캐비어, 거위 간 등 고급 음식재료가 사용된다.

점심 코스는 허브 버터, 자몽 젤리, 완두 콩인, 절임 레몬 드레싱 등을 섞어 만든 달팽이 샐러드와 차가운 감자 대과 수프, 등심구이, 디저트와 차례로 제공된다. 저녁 코스는 사위 크림 마카롱, 구운 거위 간 요리 등이 추가된다. 가격은 점심 6만6천원, 저녁 11만원이다.

오크우드 프리미어 인천은 두 가지 특별 여름 프로모션을 내놨다. 오크우드 프리미어 인천의 36층 오크 바에서는 31일까지 오후 6시~9시 생맥주 행사 ‘핫 서머 쿨 비어’를 진행한다.

‘핫 서머 쿨 비어’는 클라우드 생맥주 또는 에딩거 생맥주와 치킨링, 케이준 감자 등의 안주와 세트로 제공한다. 특히 클라우드 생맥주는 무제한이다. 에딩거 생맥주는 3잔까지 마실 수 있다. 1인 기준 가격은 클라우드 생맥주 세트 3만2천원, 에딩거 생맥주 세트 3만9천원이다.



오크우드 프리미어 인천 핫 서머 쿨 비어.

/오크우드 제공

오크 레스토랑에서는 ‘서머 웰빙 프로모션’을 말복인 12일까지 진행한다. 이 프로모션은 마, 화 등으로 국물을 낸 냉국수, 육회 비빔밥, 해산물 비빔국수, 능이 버섯 삼계탕, 갈actic탕, 장어 초밥 등 6가지 메뉴 중 골라 즐길 수 있다. 가격은 2만5천~3만3천원이며, 점심과 저녁 모두 주문할 수 있다.

주 또는 에딩거 생맥주와 치킨링, 케이준 감자 등의 안주와 세트로 제공한다. 특히 클라우드 생맥주는 무제한이다. 에딩거 생맥주는 3잔까지 마실 수 있다. 1인 기준 가격은 클라우드 생맥주 세트 3만2천원, 에딩거 생맥주 세트 3만9천원이다.

신세계여주아울렛 웨딩세일

혼수용품 등 최대 70% 할인

신세계사이먼여주프리미엄아울렛(대표·강명규)은 7~16일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신혼부부들을 위한 ‘웨딩 스페셜 세일(Wedding Special Sale)’에 들어간다.

이번 행사기간에는 혼수를 위한 생활용품부터 달콤한 신혼여행을 위한 커플 캐주얼과 잡화 등 20여개의 브랜드를 최대 70%까지 할인해 판매한다.

우선 르크루제(Le Creuset)는 원형 주물 냄비와 그릴 세트를 기존 54만8천원에서 23만5천원에 판매하는 등 냄비와 접시 세트를 최고 55% 할인한다. 로얄코펜하겐(Royal Copenhagen)은 팔메테 믹서트(6p)를 70% 할인하며, 테팔(Tefal)은 무선청소기 전 상품을 20% 추가 할인해 기존 24만9천원인 엠비너스 더블그릴을 12만5천원에, 31만원인 주물 스마트 냄비세트 4종을 14만8천원에 각각 판매한다.

스와로브스키(Swarovski)는 가을·겨울 주얼리상품을 기존 30%에서 50%로 할인율을 높여 판매하고, 룩옵티컬(Lookoptical)은 선글라스 상품을 최고 70%까지 할인한다.

여주/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15-1417호(2015.6.17) [22578]

2형(유병자형)가입 시
**병이 있어도
약을 먹어도
수술 했어도**

가입 OK되는 국내 최초의 유병자 전용 암보험

*2형(유병자형)가입시, AIDS(에이즈), 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진단자 또는 유병자 제외

라이나
무배당 **OK암보험** (갱신형)

무늬만 암보험은 가라~
이제 가입 문턱을 낮춘 암보험 탄생!

40세 남자
월 27,300원
가입금액 1,000만원
2형(유병자형)
최초계약 기준

병력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는 국내 최초 유병자 전용 암보험

*2형(유병자형)가입시, AIDS(에이즈), 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진단자 또는 유병자 제외

1형(표준체형) 15세~60세, 2형(유병자형) 30세~60세까지 가입 가능하고, 갱신을 통해 100세까지 보장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시 피보험자의 나이 및 보험료율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

위암·폐암·대장암 같은 각종 일반암은 물론, 백혈병·뇌암·골수암도 빠짐없이 보장
요즘 빈발하는 전립선암·갑상선암·유방암·기타 피부암도 보장

*일반암 2,000만원, 유방암·전립선암 각 400만원, 갑상선암·기타피부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 각 200만원
(주계약 가입금액 1,000만원기준, 계약일 이후 2년 이내 지급사유 발생시 50%보장)

*보장개시일은 1형(표준체형)의 경우 암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이며, 2형(유병자형)의 경우 암과 갑상선암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임.
다만, 소액암(1형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2형 :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은 계약일부터 보장함.

*만기지급금 50만원(주계약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만기 생존시)



24시간 무료상담문의

080-900-8484

독일 물렉스
전동 드라이버
상담만 받아도!
무료증정!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전기간 월납, 만기지급형이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갱신시 최대 100세까지 보장) *AIDS(에이즈), 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진단자 또는 유병자는 2형(유병자형) 가입 제외, 가입 2년 이내 지급사유 발생시 50%를 지급함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청약한 날로부터 최대 30일, 이 경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림. 단,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의 철회할 수 없습니다. *약관 교부 및 설명 의무 불이행, 청약서에 자필 서명 또는 전자 서명을 아니한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 취소 가능 *현재 및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본 보험계약 해지 후 또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 거절 또는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람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음.

과거의
희망

대회접수기간

2015. 7.13(월) ~ 8.14(금)

총 장학금
3,000
만원

2015 The 12th KD GROUP &
KYEONGINILBO-CUP NATIONAL JUNIOR
GOLF CHAMPIONSHIP

KD운송그룹배

2015 제12회 경인일보

전국중·고등학생

골프대회

- 일시 2015년 8월 24일(월) ~ 26일(수)
- 장소 용인 골드 C.C
- 문의 경기도골프협회 TEL. 031) 253-6277

| 참성단 |

具씨와 許씨

옛날 경남 진주에는 사돈지간인 구(具)씨와 허(許)씨가 살고 있었다. 구씨는 장사 수완이 좋았고 허씨는 진주에서 내로라하는 만석꾼 집이었다. 이들은 의기투합해 동업으로 창업했다. 경영은 가족이나 친척이 맡아서 했다. 일종의 '가족기업'인 셈이다. 창업 이념은 첫째도 인화(人和) 둘째도 인화(人和)였다. 기업은 승승장구했다. 영업에 강한 구씨와 숫자에 관한 감각이 탁월했던 허씨의 완벽한 조화는 그후 LG라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기틀을 마련했다. 이렇게 시작된 두 가문의 동업은 고 구인화-고 허만정씨, 구자경- 고 하준구씨, 구본부(LG회장)-허창수(GS 회장)씨에 이르기까지 무려 68년간 지속돼 왔다. 그러나 이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구씨와 허씨가 계열을 분리하면서 아무런 잡음이 없었다는 것. 그래서 부자간·형제간 경영권 다툼이 일상사가 된 대한민국 대기업 역사에 두고

두고 회자될 만한 모범 사례를 제시했다는 점이다. 오래전 LCD 파트너를 구하려고 한국을 방문했던 네덜란드 필립스 社의 크리 스틸 리전 회장은 LG와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한국에 투자를 결정하면서 파트너를 찾기 위해 모든 기업을 둘러봤지만 구씨와 허씨가 50년이상 동업자로서 아무 잡음 없이 경영하는 걸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이는 기업이 양보와 타협, 신뢰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이에 대해 구본부 회장은 “동업은 결혼과 같은 것이다. 생각이 다르고 자라는 환경이 전혀 다른 남녀가 함께 사는 것처럼 동업자도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양보와 타협을 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구씨의 경영을 논할 때 등장하는 것이 '정도(正道)경영'이다. 고 구인화 회장은 도박이나 술 등 사행성 산업은 물론 '먹고 마시는 것'과 연관된 소비성 사업, 부동산 투자 사업을 엄격히 금지했다. 부동산 투자로 큰 돈을 벌고, 먹고 마시는 소비성 사업으로 체계 5위가 된 재벌가 롯데가 경영권 다툼으로 휘청거리고 있다. 이제 정부가 나서 롯데그룹의 자금부터 계열사 지배까지 '집중 점검'하려는 모양이다. 롯데가 '일본기업'이라는 논란이 일어나고, 反 롯데 정서가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는 지금, 인화를 바탕으로 소리없이 치른 '범 LG가(家)'의 계열분리 작업이 새삼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영재 논설위원



| 풍경이 있는 에세이 |



유 성 호
문학평론가·한양대 국문과 교수

성취해도 전망없는 시대에

젊은이들에게 자기 개발만

강조 하는것은 '어불성설'

정부·기업, 경제 민주화와

청년실업 문제 구조적 점검과

사고전환 필요한 시점



건강한 공동체와 동기부여

한때 세상을 들썩이게 했던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이 있다. 동기부여 전문가인 호아킴 데 포사다가 들려준 이 이야기는, 인생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 과연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것을 마시멜로라는 '미국인이 즐겨 먹는, 일종의 부드러운 캔디'를 통해 풀어간다. 성공한 경영자 조나단과 그의 운전기사 찰리의 상호소통을 통한 찰리의 의식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여기서 마시멜로는 삶에서 우연하게 찾아오는 매력적이고 치명적인 유혹들을 함의한다.

이 책은 “끊임없이 결심만 하는 삶이 결심조차 하지 않는 삶보다는 희망이 있다” 혹은 “아는 것을 실천해야 힘이다” 같은 잠언적 경구들을 통해 ‘결심’과 ‘실천’이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는 가설을 제기한다. 그래서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눈앞에 펼쳐진 작은 만족과 유혹을 참고 견디면 언젠가 그 보상이 반드시 돌아온다는 굳건한 믿음을 갖는 자세”라고 역설한다. 여기서 작은 만족과 유혹이 바로 마시멜로인데, 그래서 성공은 더 많은 것을 성취하기 위해 자신의 욕망 곧 마시멜로를 먹고 싶은 생각을 참아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된다. 그것이 바로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저자에게 세상 사람들은 ‘마시멜로를 먹어 치운 사람’과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참은 사람’으로 단순 분류된다. 자연스럽게 성공은 마시멜로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달려 있게 된다.

그렇다면 '마시멜로 이야기'에 대한 폭발적인 대중적 반응은 어디에서 왔던 것일까? 이 책의 키워드는



여느 처세술 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처럼 성공과 행복에 맞추어져 있다. 또한 성공 신화의 밑바탕에 '인내'와 '꿈'과 '실천'이 있었다는 새로운 것 없는 결론을 함과 있다. 이러한 평범한 가설과 결론에도 불구하고 왜 이 책은 지난 시대의 스테디셀러로 등극할 수 있었던 것일까? 그것은 독자들이 성공한 사람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재확인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성공한 사람의 권위에 위임함으로써 얻게 되는 심리적 만족감이 바로 그것인데, 그 결과 “내 생각이 맞긴 맞았구나. 그런데 나는 실천을 못했던 거로구나!” 하는 새삼스런 각성과 자기 투사(投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의 가치는 방법적, 기술적 처세와는 다른, 매우 근본주의적인 삶의 태도를 강조하는 데서 발생하는 보편적 공감에 있다. 저자는 누누이 “성공하는 사람은 늘 소수”라는 전언을 선사한다. 당연히 독자들은 바로 그 소수가 되기를 욕망한다. 그런데 그 구체적 방법으로 이처럼 인내와

꿈과 실천이 주어지고 있으니, 그 평범함과 보편성에 독자들은 안도하고 스스로를 다잡는 것이다. 아마도 더 복잡하고도 어려운 각론적 처방이 제시되었다면 독자들은 불편했을 것이고 결국 이 책을 외면했을 것이다. 삶의 태도를 바꿈으로써 성공과 행복을 향할 수 있다는 보편적 자기 개발의 서사는, 그만큼 성공에 목말라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흡인력을 가지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권면과 경책이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할까?

지금 우리는 이러한 보편적 자기 개발의 계몽이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질 수 없는 불모와 폐허의 시대를 살고 있다. 지금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는 지표들은 당사자들의 결심이나 실천으로 넘어가기에는 너무도 많은 구조적, 심층적 문제들을 안고 있다. 특별히 청년 세대가 겪고 있는 미래 불안 자수는 마중유의 것 이어서, 정부나 기업 모두 공동체적 관점에서 사고의 전환을 가져와야 하는 시점에 다다른 느낌이다. 그러나 성공과 행복을 위해 인내와 꿈과 실천을 강조하는 답론은 당사자들의 의지 부족으로 이러한 구조적 문제들을 호도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자기 성취의 전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 자기 개발의 실천만을 강조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청년들의 자기 개발 의지를 강조하는 것과 함께, 우리는 다시 한 번 공동체적 관점에서 경제 민주화의 과제나 청년 실업의 문제들을 구조적으로 살피면서 건강한 공동체에서의 동기부여를 받아가야 할 것이다. 마시멜로의 유혹을 참고 견디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공동체가 구현되기를 대망하면서 말이다.

| 발언대 |

모두를 위한 배려! 금연벨의 기적



안 승 철
시흥시보건소장

예전에는 마음껏 담배를 피울 수 있었던 호프집과 PC방, 버스정류장, 공원 등이 이제는 금연구역이 됐다. 그러나 여전히 금연구역에서 노인과 임산부, 아이들이 곁에 있어도 아무렇지 않게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가끔 만날 수 있다.

간접흡연에 노출된 사람들이 말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담배 연기로부터 자유로울 비흡연자들의 권리를 주목해야 했지만 뚜렷한 방법이 없다.

그런 고민 속에 태어난 것이 금연벨이다. 이 아이디어는 경기도 주관 창조적 정책발표회에서 우수상(상금 8천만원)을 수상했다.

법적 금연구역 내 흡연 신고를 받고 현장에 가보면 증거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단속이 난

관에 봉착하고 민원 마찰도 늘어 사고의 전환에서 시작된 금연벨은 비흡연자의 생각을 대신 말해주며 호응을 얻었다.

다중집합장소인 버스승강장, 전통시장, 지하철역 주변 등에서 담배 연기 때문에 불편을 느끼는 순간, 누군가 누른 금연벨에서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멘트는 흡연자들에게도 작은 울림이 되어 자발적 행동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금연 장소에 여러 개의 금연벨을 설치하고 안내방송이 나오면 스피커의 위치를 어느 정도 떨어뜨려 놓는 것이다. 벨을 누른 후 5~10초가 경과 한 후에 안내 멘트가 나오게 해 정확히 누가 벨을 눌렀는지를 알 수 없게 하는 등의 숨은 배려는, 적은 예산으로 시민 만족도 상승과 민원 발생 감소라는 두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었다.

금연단속의 한계를 넘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자각을 일깨우고 서로를 배려하는 새 금연문화인 금연벨. 우리의 꾸준한 노력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지속 된다면, 단속 없는 건강한 금연문화 정착은 조만간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112와 함께 피싱 금융사기 예방법



김 정 기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경위

문명의 발달은 편리한 생활을 제공해 준다. 하지만 그림자도 있기 마련이다. 인터넷·휴대폰 등이 은행창구 긴 대기 줄을 없앴지만 이를 이용한 사기조직 출현도 가져왔다.

이러한 사기조직의 기법은 날로 진화, 그 악랄함은 다양해지고 있다. 얼마 전 중국 여배우 위사오판도 상하이 공안국이라고 밝힌 전화금융사기에 속아 800만원(14억원)을 송금했다고 하니 그 대상은 국경,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있다. 보이스 피싱은 생각지 않은 이익을 기대하게 하는 유혹과 예기치 않은 피해를 강조하는 불안감의 틈새를 파고든다. 전자가 세금 등의 환급을 빙자하는 유형이라면 난치기를 가장하는 것이 후자일 것이다.

사람은 예기치 않은 말을 들을 경우 당황하기 마련이다. 그러면 사리 분별력이 떨어지고 당장이라도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의심과 비판의 끈을 놓게 된다. 이렇듯 보이스 피싱에 접하면 외부 도움 요청은 생각도 못하고 허둥지둥 은행 ATM기 등을 찾아가 그들이 불러주는 계좌로 송금하게 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3월에만 전화금융사기는 2천451건이 발생했고 피해액도 31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0%가량 늘었다. 이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감원과 경찰청은 공동대응 핫라인 설치, 대포통장 근절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피해를 당한 후에는 수사에 장시간 걸리며 피해자가 입증 책임을 지는 등 금전적 피해 외에도 화병을 일으킬 정도의 심리적 고통이 따르는 게 바로 전화 금융사기다. 보이스 피싱, 파밍 등 금융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제일 먼저 개인 스스로 조심하고 주의해야 한다는 현실이 습습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현실이다.

※ 외부인사의 글은 경인일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경인일보		경인일보는 신문유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회장	이길여	발행·편집인	송광석
편집국장	장철순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99 ☎442-702 전화 031)2315-114 팩스 232-1231, 223-2662 편집부 2315-339 정치부 2315-350 경제부 2315-351 사회부 2315-360 지역사회부 2315-370 사진부 2315-316 문화체육부 2315-380 교열부 2315-340 디지털뉴스부 2315-375		
인천시	남구 학익로 684-1 ☎402-041 전화 032)861-3200 팩스 861-3206, 3209 정치부 861-3200 경제부 861-3201 사회문화부 861-3202 사진부 861-3203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24 삼보호텔빌딩 801호 ☎150-608 전화 본부 02)780-0456 팩스 780-0356 취재부 780-0458 광고부 780-0457		
광고문의	수원 031)2315-252-9 인천 032)861-3204 서울 02)780-0456 구독료 월 10,000원 / 1부 500원 구독신청 031)2315-503		

소래포구 종합어시장

소래포구 종합어시장 88호 자연산 활어 전문

성북수산물

다양한 어종과 싱싱한 활어를 매일 산지 직송으로! 착한 가격, 착한 서비스로 모십니다!

NAVER 소래성북수산물 검색

상시 예약환영 010.4794.5416 / 010.3553.5416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80-1 소래포구 종합어시장 6번출구 88호 용인대학교 성북수산물

분 할 합 병 공 고 (채권자 이외 및 주권대출공고)

주식회사 동경그린전력 (이하 "갑")과 주식회사 가나 (이하 "을")는 2015년 08월 06일 각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을"의 소액사실상가액 영업부문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문을 "갑"과 분할합병하고 "을"의 분할된 부문의 권리와 의무를 "갑"이 승계하고 양 회사는 존속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분할합병에 따라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각 사의 주주는 해당사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에 공고함.

2015년 8월 7일

"갑" 주식회사 동경그린전력
경기도 시흥시 구수미3길 18-22 (미산동)
대표이사 김 정 현

"을" 주식회사 가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동로 130(상하동)
사내이사 김 병 문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구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기간내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 관계법령에 의거 공공묘장 임의 개장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인천시 중구 남북동 158-2번지(양아)
2. 분묘가수 : 2기
3. 개장사유 : 재산분할 행사
4. 이장장소 : 전북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1167 평화원 남향당
5. 안치기간 : 10년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7. 개장방법 : 무연분묘 - 연구자와 협의 이장
8. 신고장소 : 묘지관리위원회 (오송동) (010-2370-1598)
9. 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구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한후 있는 호적, 제적 등본, 호보, 묘지신고서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지에 신고.
10. 기 타 : 분묘개장 이후 사별이 관련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도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5년 8월 7일

공고인 : 김 인 석
묘지장전문업체 : 오송장묘(010-2370-1598)

판 결 공 시

제1심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지2866 뇌물공여

피 고 인 조 성 호

위 피고인은 뇌물공여죄로 기소되었으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요 해당하여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5년 8월 5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 1 형사부 판 사 고 종 영

상속의 한정승인 공고

2015. 2. 28. 피상속인 망 장영성(590615-1**** ***, 최후주소:성남시 중원구 회망로359번길 40-1 (상대원동))의 사망으로 상속인 장주희는 상속재산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상속의 한정승인을 신청하였으며(2015나단588호) 2015. 7. 28일자로 수리되었음을 공고 합니다. 피상속인 망 장영성과 채권관계에 있는 분들은 공고 익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아래 연락처로 채권관계를 신고하여 주십시오. 만약 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이후 상속재산으로 변제하지 못합니다.

2015년 8월 7일

공고인 : 장 주 희
주 소 : 서울 강북구 삼양로59길 16-1 (마야동)

해산 및 채권 신고 공고(1차)

당 회사는 2015년 7월 3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결의 되었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2015년 10월 10일까지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일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사기 2015년 8월 7일

경원메디케어 주식회사
경기 시흥시 화양광원로 241, 2차 2층5호 (경원동, 시화광원)
홍인 김 경 원

해산 및 채권 신고 공고(1차)

당 회사는 2015년 7월 3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결의 되었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2015년 10월 10일까지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일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사기 2015년 8월 7일

주식회사 코모시스
경기 시흥시 화양광원로 241, 2차 2층5호 (경원동, 시화광원)
홍인 김 경 원

종합미디어그룹 경인일보

지면·배너·전광판 광고

문의 수원 031-231-5271 인천 032-861-3200

단 한번 이긴 여자... 단 한번 패한 남자

<북한전 1승1무13패>

<북한전 6승7무1패>



한국 남녀 축구가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축구선수권대회(이하 동아시안컵)에서 사상 첫 동반 우승을 노린다. 윤덕여 감독이 이끄는 여자 대표팀은 8일 북한과의 마지막 경기에서 2005년 한국에서 열렸던 제1회 대회 이후 10년 만의 우승에 도전한다. 또 슈틸리케호는 9일 북한을 상대로 2008년 중국 대회 이후 7년 만에 다시 중국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릴 준비를 하고 있다. 만약 우승하면 동아시안컵 통산 3번째다. 특히 한국 남녀 축구가 함께 우승하면 동아시안컵에선 사상 처음으로 한 국가가 동시에 2개의 트로피를 가져오게 된다.

■태극남자, 북한 꺾어야 우승

윤덕여호는 8일 오후 6시10분(한국시간) 중국 우한 스포츠센터 스타디움에서 북한과 우승컵을 다툰다. 이 경기는 사실

동아시아컵 막판은 남북대결

8·9일 차례로 출격 '사실상 결승'

남자축구 비길때 중일전에 달려

상의 결승전과 닮았다.

이번 대회는 4개팀이 풀리그로 우승팀을 가린다. 그러나 남은 1경기를 남겨놓은 상황에서 한국과 북한은 각각 2승씩을 챙겼다.

한국은 지난 1일 중국을 1-0으로 격파하고, 4일 2차전 상대인 일본마저 2-1 역전승을 거두며 승승장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을 4-2, 중국을 3-2로 꺾은 북한 여자대표팀에 골득실에서 밀려 2위를 마크 중이다.

따라서 이번 대회 우승을 위해선 북한을 반드시 제압해야 한다. 비길 경우 우승컵은 북한이 된다.

객관적인 전력에선 북한이 다소 앞선

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에서 북한(8위)은 한국(17위)보다 9계단이 높다. 역대 전적에선 한국이 1승1무13패로 열세다. 게다가 한국 여자축구는 2005년 동아시안컵에서 1-0으로 승리한 후 10년간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다. 지난해 인천 아시안게임에선 준결승에서 1-2로 졌다.

그러나 태극남자들은 이번 대회 중국과 일본을 연파하면서 사기가 높아진 데다 북한도 잡겠다고 버리고 있어, 또 한 번의 이변을 예고하고 있다.

■태극전사 우승 자신

한국랭킹 역주행 '일본은 제쳐'

54위 2계단 하락... AFC선 2위

한국 축구가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순위에서 6개월만에 일본을 제쳤다. 아시아축구연맹(AFC) 가맹국 가운데 랭킹

슈틸리케호는 9일 오후 6시10분 중국 우한 스포츠센터에서 북한과 마지막 경기를 벌인다. 북한과의 A매치는 2009년 4월 서울에서 열렸던 FIFA 남아공 월드컵 최종 예선 이후 6년 4개월만이다. 슈틸리케호는 1차전에서 중국을 2-0으로, 2차전에서 일본과 1-1 무승부를 기록하며 1위를 달리고 있다. 북한은 일본에 2-1 역전승을 거뒀으나, 중국에 0-2로 밀리며 3위로 내려앉았다.

따라서 슈틸리케호가 북한을 이기면 다른 팀의 경기에도 상관없이 통산 3번째 우승

을 확정 짓는다. 무승부를 기록하면 뒤이어 열리는 중국-일본전의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패할 경우 우승은 어렵다.

FIFA랭킹은 이번달 현재 한국(54위)이 북한(124위)보다 높고, 역대 전적에서도 6승7무1패로 앞서 있다. 한국은 1990년 10월 평양에서 열렸던 친선경기에서 1-2로 패한 후 한 번도 북한에 지지 않았다. 태극전사들은 일본과 비기면서 3전 전승의 우승은 물거품이 됐지만, 북한을 반드시 잡고 자력으로 우승하겠다는 의지다.

/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

두 계단 내려간 것이다. AFC 가맹국 중에선 이란이 41위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고 한국, 일본, 호주(61위)가 그 뒤를 이었다.

동아시아컵 3차전에서 한국과 맞붙을 북한은 124위를 마크했다.

/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



슈퍼맨이 된 다이버 6일(한국시간) 러시아 카잔의 카잔 아레나에서 열린 2015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남자 27m 하이 다이빙 결승전에서 체코의 마이클 나브라틸이 멋진 자세로 다이빙하고 있다.

/AP=연합뉴스

곡선중 에이스 '가쁜한 스매싱'

장관기탁구서 인천남중 4-0 완승

올해 4번째 우승·대회 2연패 달성

여중부선 문산수역중 정상 올라

‘탁구 명가’ 수원 곡선중이 제48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남녀학생종별탁구대회에서 단체전 우승을 차지하며 시즌 4개 대회를 제패했다.

곡선중은 6일 경북 영천실내체육관에서 막내린 대회 남중부 단체전 결승에서 인천남중을 4-0으로 제압하고 1위에 올랐다. 이날 우승으로 곡선중은 올해 중·중별대회, 전국중별대회, 소년체전에 이어 시즌 4관왕에 올랐고 지난해에 이어 2연패를 달성했다.

곡선중은 1단식에서 김홍빈이 상대 채병욱을 3-1로 꺾은 뒤 2단식에서도 김예능이 인천남중 안중영을 3-2로 물리쳤다. 곡선중은 3복식에서도 송준현-김예능이 상대 이상훈-황민을 3-0으로, 4단식에서 송준현이 인천남중 최인혁을 3-0으로 각각 이기고 우승기를 가져왔다.

곡선중 윤정일 코치는 “결승에서 선수



6일 경북 영천실내체육관에서 막내린 제48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남녀 학생종별탁구대회 중등부 단체전에서 우승한 곡선중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곡선중 제공

들이 모두 잘해줬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낼 수 있었다”면서 “남은 대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여중부 단체전에선 파주 문산수역중이 결승전에서 서울 명지중을 4-2로 물리치고 정상에 섰다.

문산수역중은 1·2단식을 모두 내렸지만 3복식에서 김예림-유한나가 상대 최혜은-유시우를 제압하며 분위기 반전에 성

공한 뒤, 4단식에서 위예지가 김명선을 이겨 적극적으로 동점을 만들었다. 이후 문산수역중은 5복식에서 위예지-안소연이, 6단식에서 유한나가 차례로 승리하며 우승을 확정했다.

이밖에 남중부 개인전 결승에선 우형규(부천 내동중)가 조기정(충남 호서중)을 3-1(11-4 11-8 11-3)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수원 삼성 제공

매탄중, 6연속 '우승 드리블'

추계중등축구연맹전 2연패

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1부리그) 수원 삼성 U-15팀인 매탄중이 제51회 추계중등축구연맹전 1학년부에서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주승진 감독이 이끄는 매탄중은 6일 제천 축구센터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결승전에서 김포 통진중을 3-0으로 대파하며 우승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이번 대회 우승으로 대회 2연패를 거머쥔 매탄중은 참가 6개 대회 연속 우승이라는 신기록도 달성했다. 매탄중은 지난해 오프기 우승을 시작으로 2014 추계연맹전, 2015 춘계연맹전 프로산하 그룹, 춘계 연맹전 왕중왕전,

소년체전에 이어 이번 2015 추계 연맹전까지 참가하는 대회마다 모두 정상에 오르는 저력을 발휘했다.

이날 결승에서 매탄중은 전반 6분 손승우의 프리킥 골을 시작으로 전반 21분과 35분 천세윤과 고현우가 각각 추가 골을 넣어 승리를 확정 지었다.

수원 삼성 관계자는 “매탄중의 우승 행진은 수원 삼성 축구단의 유소년 육성에 대한 체계적 투자와 노력이 맺은 결실”이라면서 “2009년 창단한 매탄중은 그동안 기술, 정신력, 인간미의 3대 육성 철학을 바탕으로 한국 축구와 K리그를 이끌어 나갈 우수한 유소년 선수들을 키워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SK “가을야구 가야지”

힘빠진 한화 5위서 끌어내려

KIA 무서운 상승세도 ‘주춤’



있는 5위 자리싸움이 치열하다. 특히 인천 SK 와이번스는 모처럼 상승세를 타며 한화 이글스를 끌어내리고 5위 자리를 탈환했다. 후반가 들어서면서 눈에 띄는 것은 삼성 라이온즈가 단독 선두 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그 뒤를 NC 다이노스, 넥센 히어로즈, 두산 베어스가 뒤쫓으며 2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해마다 그렇듯 이맘때가 되면 최고 관심사는 포스트 시즌 막차를 누가 타느냐다.

현재 SK와 한화, KIA 타이거즈가 마지막 와일드카드를 손에 쥐기 위해 치열한 중위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SK는 최근 안방으로 불러들인 한화를 상대로 2연승을 거두는 등 상승세를 타고 있다. 순위도 5위로 올라섰다.

마운드의 뒷받침 속에서 ‘가을남자’ 박정권이 최근 10경기에서 0.371의 타율을 기록하는 등 타선도 힘을 내는 모양새다.

반면에 한화는 점점 힘에 부쳐 하는 분위기다. KIA에 지난 주말 3연전을 모두 패한 뒤 SK에도 2연패를 당하며 버텨오던 5위 자리를 SK에 내주고 6위로 떨어졌다. 최근 새로 영입한 뉴욕 양키스 현역 투수 에스밀 로저스의 활약 여부가 더욱 주목되는 시점이다.

후반기 들어 가장 돋보였던 팀은 KIA다. 좀처럼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KIA가 후반가 시작하면서 6연승 가도를 달렸다. 하지만 선발로 나선 에이스 양현종이 대량 실점하는 등 마운드가 버텨주지 못하면서 넥센에 2연패를 당했다.

중위권을 형성한 이들 3개 팀은 2개팀자 내에서 얽차락뒤차락 접전을 펼치고 있다.

올 시즌 삼성의 독주를 막아낼 대항마로 평가받으며 한때 선두 자리까지 올랐던 SK가 최근 연승 행진의 기세를 몰아 내친 김에 한화와 KIA의 맹추격을 따돌리고 선두권으로 치고 올라갈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홈 팬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

이건국, 50m소총 3자세 대회신

‘사격 기대주’ 이건국(고양 주엽고)이 제41회 회장기 전국중·고등학생사격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이건국은 6일 전남종합사격장에서 열린 대회 3일째 남고부 50m 소총 3자세 결선에서 443.1점의 대회신(종전 442.2점)을 기록하며 이재원(서울 오산고·442.5점)과 윤성준(서울고·431.7점)을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또 남고부 50m 소총 3자세 단체전에선 남궁호-유승석-유병욱-황재운이 출전한 팽백 한광고가 함께 3천380점을 획득해 인천체고와 주엽고(이상 3천375점)를 따돌리고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기대를 모았던 남고부 25m 속사관총 단체전에선 이재균-양윤호-김경환-유민상이 출전한 의정부 송원고가 합계 1천659점으로 서울 환일고(1천679점)에 이어 2위에 머물렀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주말의 경기

7일(금) △프로야구=넥센-두산(잠실) LG-한화(대전) kt-KIA(광주) 롯데-NC(마산) SK-삼성(포항·이상 18시30분)

8일(토) △프로야구=KIA-NC(마산) kt-SK(문학) LG-두산(잠실) 롯데-한화(대전) 넥센-삼성(대구·이상 18시) △프로축구=K리그 챌린지 수원FC-서울E(수원) 충주-고양(충주) 부천-안산(부천·이상 19시) 대구-안양(대구·19시30분)

9일(일) △프로야구=KIA-NC(마산) kt-SK(문학) LG-두산(잠실) 롯데-한화(대전) 넥센-삼성(대구·이상 18시) △프로축구=K리그 챌린지 상주-강원(상주·19시)

스포츠의 감동, 꿈과 희망 전하다



19개 시·군 1600여명 대상 진행
kt 경기관람 야구응원문화 즐겨
안전교육 철저 해양스포츠 체험
한국민속촌서 전통놀이도 배워

여름 방학을 맞아 도생활체육회는 꿈나무 스포츠학교에 참가한 학생들이 좀처럼 경험해 보지 못한 이벤트를 구상했고 프로 스포츠 관람과 해양 스포츠 체험, 한국민속촌 견학 등을 준비했다. 19개 시·군에서 1천600여명의 아동 및 관계자가 참여한 이번 이벤트는 7월 한 달 동안 진행됐다.

사무처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문화·예술·체육 활동에 소외된 사회배려계층 아동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방학 중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줄 수 있어서 행복했다”면서 “앞으로 꿈나무 스포츠학교와 같은 스포츠복지 사업을 확장해 더 많은 꿈나무들이 고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수원 케이티위즈파크 관람 = 7월 1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친 스포츠 이벤트는 수원에 연고를 두고 있는 kt wiz의 홈경기를 관람하는 것이었다. 수원 등 9개 시·군 800여명이 참가해 kt의 승리를 함께 외쳤다. 이러한 프로스포츠 관람 이벤트의 추가가치는 ‘건강’이다. 경기 결과 또는 과정이 주는 감동을 넘어서 스포츠가 줄 수 있는 꿈과 희망을 도내 청소년에

게 전달함으로써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지원코자 한 것이다. 이날 아이들은 승패를 떠나서 함께 kt를 응원을 하면서 야구 응원 문화를 배웠고, 전광판에 kt wiz를 응원하는 문구를 전송하면서 즐거워했다.

■ 해양스포츠 체험 = 7월 25일 화성시 전곡항에선 2차 스포츠 이벤트가 진행됐다. 가평, 청평, 주소방, 설악지역 아동센터 1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안전 교육 및 편보트, 페달 보트, 레프팅, 카약, 크루저 요트 체험을 진행해 참가 아동 및 지도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 체험의 가장 큰 목적은 ‘안전’이었다. 쉽게 접하기 힘든 해양 스포츠를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추억이 됐지만 본격적인 체험에 앞서 진행된 해상 안전 교육, 구명조끼 착용법, 비상탈출 절차 훈련 등을 배우는 아이

들의 눈빛은 사뭇 진지했다.

■ 한국민속촌 견학 = 1일 열린 한국민속촌의 견학 인기도 만만치 않았다. 한국민속촌에 방문한 750여명의 아이들은 오랜 시간 전송돼 온 고유의 생활풍속 및 놀이체험과 마상마술 공연 관람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도생활체육회 관계자는 “우리 선조들은 각종 무예나 놀이를 통해 다양한 신체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통한 전인양성에도 힘썼다”면서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통해 예로부터 전해지는 신체활동의 역사와 가치를 스스로 깨닫게 해 스포츠와 삶이 톺나바뀌처럼 함께하는 문화라는 것을 전달하고자 민속촌 이벤트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경기도생활체육회 대학자원봉사단이 7일 가평역에서 안전사고 예방 홍보활동을 벌인다. 사진은 한경대 자원봉사단 학생들. /경기도생활체육회 제공

대학봉사단 안전사고 예방·뉴스포츠 알리기

경기도생활체육회

경기도생활체육회 대학자원봉사단(SPOLIGHT)이 가평역에서 안전사고 예방 홍보활동을 펼친다. 송준섭 한경대 SPOLIGHT 팀장은 “안전한 여름철 물놀이를 위한 다양하고 쉬운 체조를 전파해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나아가 실생활의 모든 신체활동이 생활체육임을 알리고자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라면서 “앞으로도 우리의 열정과 재능기부를 통해 누구나 어디서든지 쉽게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홍보활동은 성공적인 캠페인 전개를 위해 SPOLIGHT 단원 대학생들이 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기획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송준섭 한경대 SPOLIGHT 팀장은 “안전한 여름철 물놀이를 위한 다양하고 쉬운 체조를 전파해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나아가 실생활의 모든 신체활동이 생활체육임을 알리고자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라면서 “앞으로도 우리의 열정과 재능기부를 통해 누구나 어디서든지 쉽게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인천시생활체육회가 주관한 ‘2015 생활체육안전교실 오리엔티어링캠프’에 참여했던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시생활체육회 제공

청소년과 함께 야영체험 ‘오리엔티어링캠프’

인천시생활체육회

인천시생활체육회(회장·이인철)는 강화군 국화리 학생야영장에서 ‘2015 생활체육안전교실 오리엔티어링캠프’를 성황리에 마쳤다. 지난 4일까지 1박2일 간 진행된 이번 캠프에는 가좌여자중학교, 강화여자중학교, 화도진중학교 학생과 교사 100여 명이 참가했다. 오리엔티어링이란 지도와 나침반만을 가지고 목적지를 찾아가는 활동으로 빠른 지도 해석력과 판단력, 체력을 동시에 필요로 한다.

학생들은 친구들과 조를 이뤄 야영생활을 체험했다. 특히 지도 보는 방법과 나침반 사용법 등을 익힌 후 인근 산과 들에서 오리엔티어링을 체험하며 인내력과 협동심을 길렀다. 또 강화소방서에서 재난 대비 안전교육과 심폐소생술 실습 등을 했다. 이인철 시생활체육회 회장은 “단체생활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기르고 체력증진 향상에 도움이 됐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함께할 수 있는 생활체육 사업을 더 다양하게 개발하겠다”고 했다.

/임송재기자 isj@kyeongin.com

Biothys
OLFACTIVE SILENCE

하·폐수처리장, 우수토구, 음식물처리시설, 쓰레기매립장, 축산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악취가 있는 어느곳에나 설치 가능합니다!

봄철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고악한 냄새**~

여기 **악취/Killer**
탈취/Man이 있소이다!

악취제거 전문회사

비오티스Asia(주)

친환경, 경제성, 탁월한 성능까지! 세마리 토끼를 잡다!

비오티스 아시아는 프랑스 Biothys GmbH와 2000년부터 2년간 공동 연구·개발한 결과 인체에 무해한 천연 탈취 상용화에 성공하여 오늘날 이는 물론 미국, 호주 등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으며, 2002년 프랑스 Biothys GmbH와 계약을 체결하여 Asia지역 독점 판매권을 확보한 악취제거 전문회사입니다.

악취제거 탈취기 설치 실적
(매립지, 하·폐수처리장 등 500개소)

Clean House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실적
(38개 시·군·구 314개소)

Biothys Asia 비오티스 아시아(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로 313-9 TEL. 031-707-7123 FAX. 031-703-7124

<http://www.biothys.co.kr>



여주 해평윤씨 동강공파 종가. /경기학연구센터 제공

마당 깊은 집 ‘한줄기 선율’

여주 해평윤씨 동강공파 종가서 오늘 음악회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는 올해 ‘경기민속문화의 해’를 맞아 7일 오후 7시 여주 해평윤씨 동강공파 종가에서 ‘한 여름 밤의 고택 마당음악회’ 공연을 개최한다.

공연 장소인 해평윤씨 종택은 조선 고종 28년(1891)에 지어져 124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곳이다. 안방과 대청마루가 나란히 놓인 형태의 전형적인 조선 후기 경기 지방 가옥으로, 현재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97호로 지정돼 있다.

이번 공연에는 창작악단 ‘해조음’이 참여한다. 다양한 악기를 활용해 침향무·아리랑 블루스·판소리 흥부가 등을 선보이며, 전통·현대 음악을 함께 아우를 예정이다. 신명 나는 공연은 물론, 경기 종가의 존재 의미와

가치도 함께 느껴볼 수 있다.

경기학연구센터는 이번 행사 외에도 안산 경성당, 의정부 서계종가, 광명 오리종가, 용인 해주 오씨종가 등 경기지역 전통 종가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공연을 통해 조선 후기 시대상을 고스란히 간직한 곳에서 종부와 종손을 만나 집안의 역사 이야기도 듣고, 음악회도 즐길 수 있어 일석이조의 경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무료이며 공연 현장에 ‘문화이음’ 기부금 모음통이 운영, 관람객들의 자발적인 기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문의: (031)231-8579 /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웅기는 예로부터 일상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귀한 도구였다. 선조들은 채소나 장(醬)을 저장·보관하는 그릇으로 웅기를 사용했으며, 자체 정화기능 덕분에 웅기는 집집마다 물 저장고로 활용되기도 했다. 이처럼 웅기는 우리 민족의 생활 속 지혜가 집약돼 만들어진 산물이다. 부천웅기박물관은 과학과 웅기의 만남을 다룬 ‘우리그릇 웅기이야기’ 기획전을 오는 10월 31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부천시 박물관에서 진행하는, 교육과 박물관의 융합 ‘Ede+museum’ 시리즈의 일환으로 열린다.

부천웅기박물관 석달간 기획전

지역 채굴장소 표기 ‘황토지도’ 공개

‘웅기유’ 개발 영상으로 우수성 확인

도예연구소서 직접 과정 체험기회도



황톳빛 생활의 지혜를 담다



부천 지역 내 웅기의 원료가 되는 황토가 출토된 장소를 모아 만든 황토지도와 전시실에 배치된 웅기.



/부천웅기박물관 제공

경인일보와 함께하는
경인항공여행사

엘리시안CC+세인트포CC

휴가철 골프여행의 끝판왕!



엘리시안CC+세인트포CC 1박2일 36홀, 1인 399,000원

엘리시안CC+세인트포CC 1박2일 45홀, 1인 429,000원

출 발 2015년 8월 23일(일)

포 함 왕복항공료(아시아나항공), 세인트포 60평 골프텔(4인1실), 그린피 2회, 클럽하우스 조식, 셔틀차량(2일), 발마사지(36홀고객 限)

불포함 카트피, 캐디피, 중식식, 기사봉사료(1인 1만원)

일 정	카트피	시 간	내 용	비 고
8/23(일)		06:50	아시아나항공 김포출발	
		08:30	미팅 및 차량탑승	
		11시~12시	엘리시안CC 티오프	18홀
		19:00	석식 (제주시 방면)	불포함
		21:00	세인트포 골프텔 체크인	4인1실
2일차		06:20	조식 (클럽하우스)	포함
		08시~09시	세인트포CC 티오프	18홀 또는 27홀
		오후	발마사지	18홀고객
		20:30	아시아나항공 제주출발	

※3팀 이상 예약시 단독 행사차량이 배정됩니다. 문의 02-1577-5779 경인항공 장일수 팀장 TEL.1577-5779

웅기박물관은 장소부터 특별한 의미를 지닌 곳이다. 천주교 박해가 가장 극심했던 병인박해(1866년) 당시 관군의 눈을 피해 천주교인들이 현재 박물관이 들어선 ‘점말’(현 부천시 여월동)지역에 들어와 웅기를 구워 팔며 생계를 유지했다.

이같은 역사적 배경을 기반으로 이곳은 역사적 정통성을 인정받은 전문 박물관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전시는 웅기제작 방법을 관람객에게 전하는 동시에 부천의 지

역성과 웅기의 미래발전 가능성도 보여준다.

특히 올해 초 웅기박물관이 수도권예연구소와 함께 부천 여월동에서 채취에 성공한 적황토를 활용, 웅기 유약 ‘웅기유’를 선보여 주목된다. 부천 지역 구석구석의 흙을 분석해 웅기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황토를 채굴할 수 있는 장소를 표기, 이를 지도로 제작한 ‘황토지도’도 만나볼 수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웅기유 개발 과정을 직접 촬영한 영상을 상영해 관

람객들이 제작 과정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시장에 마련된 ‘도예연구소’라는 체험공간에서 웅기 제작 과정을 직접 체험해 볼 수도 있다.

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를 통해 일반인들의 웅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선조들의 지혜가 배어있는 웅기를 통해 과거 조상들의 생활상을 간접적으로 느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032)668-9057~8 /유은총기자 yooec86@kyeongin.com

얼음창고의 문화공간 변신 ‘빙고!’

인천 아카이브 카페 빙고

형태 보존 리모델링 ‘정성’

근대 건축 전시장 활용도

방치된 옛 얼음창고가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지난 3일 오후 외국인 선원들이 주로 찾다는 인천 중구의 한 술집 후미진 뒷골목을 찾아갔다. 좁은 골목을 들어서니 어두운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깔끔한 공간이 나타났다. 이곳의 이름은 ‘인천 아카이브 카페 빙고(氷庫)’.

나무로 된 미닫이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 공간의 주인공 이의중(36)씨가 일어서 인사를 건넸다. 이씨는 오래전 얼음창고였다가 최근까지 일반 창고로 사용된 이곳을 경매를 통해 인수했다고 한다.

내부를 살펴보니 건물 외벽아래 쪽은 2m 높이의 화강암 석축을 쌓고 그 위로는 붉은 벽돌을 쌓아 올려 만든 모습이었으며, 목조 구조물이 건물 지붕을 받들고 있는 구조였다. 그는 “내부 공간에 가동없이 벽돌과 나무로 만든 전형적인 근대 창고 양식”이라며 “낡고 오래된 건물의 형태를 보존하면서 현대인이 사용하기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고치는 것이 결코 만만한 일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황토를 발라 쌓아올린 벽돌은 언제든 무너질 것처럼 위태로웠고, 목조 지붕과 가동도 반쯤은 썩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할 정도로 건물 상태가 좋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꼼꼼히 계획을 세워 올해 봄부터 차근차근 손을 봤다. 벽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황토를 조금씩 제거해 다른 재료로 채웠고, 나무 기둥과 지붕도

재료 하나하나 상태를 봐 가며 교체하는 과정을 거쳤다.

공사가 마무리되니 골목에서 뒹굴던 취객들의 토사물과 쓰레기도 자취를 감췄다. 인근에서 30년 가까이 장사를 해온 유창웅(59)씨는 “밤이면 술 취한 사람들의 고성과 주먹질이 오가고 때로는 칼부림도 벌어지던 골목이 이전 일부러라도 들르고 싶은 골목이 됐다”며 흐뭇해 했다.

이 공간은 카페 외에 인천 중구의 근대 건축물에 관한 전시장으로도 사용될 예정이다.

이씨는 “개항장 일대의 오래된 건축물을 다듬어 새로운 가치를 불어넣는 일을 이어가고 싶다”며 “건축물과 함께한 도시의 역사와 숨겨진 이야기를 계속 찾을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폐허 공장부지 등 불친절한 도시 시각화

이아름나리 작가 개인전

30일까지 ‘대안공간 뎀’

이아름나리 작가의 개인전 ‘불친절한 주변의 노래’가 8일부터 30일까지 인천 남구 신기시장 뎀 ‘대안공간 뎀’에서 열린다.

인천에 사는 이작가가 자신의 일상 공간 주변을 관찰하며 도시로부터 느낀 불친절한 감정들을 영상 등

으로 시각화했다. 인천 남구의 한 아파트단지 공사 현장 혹은 폐허로 변해버린 공장 부지 등 도시의 변화를 목격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욕망·전박함·돈 등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채 사라지는 가치에 주목했다.

아파트 분양 현수막을 모아 밧줄을 형상화 한 설치 작품을 비롯해 공사 현장의 모습 등을 기록해 만든 짧은 영상물 등을 만날 수 있다. 대안공간 뎀(인천신남구 주송로



이동하는 건설의 전설, 싱글 채널 비디오, 3min 40sec, 2015

69번길 22, 월요일 휴관). 문의: (032)259-1311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2년에 개최된 제3회 어수국제범선축제 모습. /광주일보 제공

바다·섬·숲·계곡... 심포 하나, 추억 둘

여름이라서 더 좋다. 뜨거운 태양이 반짝이는 바다에서, 시원한 계곡에서, 짙은 녹음으로 물든 숲 속에서 전남의 아름다운 자연을 만날 수 있다. 각기 다른 매력의 바다, 섬, 숲, 계곡을 지니고 있는 여수, 강진, 영암, 광양에서 여름 추억을 쌓아보자.

Jeonnam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기획

#축제로 흥겨운 여수 바다

바다의 도시 여수가 축제로 들쭉인다. 여름바다의 낭만이 가득한 축제의 현장이 기다린다. 12일 여수세계박람회 3주년을 기념하는 축하 마당이 펼쳐진다. 여수세계박람회장 내 특설무대에서 축하 공연이 진행되고 화려한 BIG-O쇼가 여수 밤하늘을 물들인다. 3주년을 맞아 레이저쇼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12일부터 17일까지 우아하게 뿔을 늘어뜨린 법선이 여수항을 가득 채운다. 홀수 해마다 개최되는 여수국제범선축제의 4번째 잔치가 벌어진다. 영화 속 주인공처럼 범선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외국 승무원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다.

13일부터 16일까지 해양스포츠의 박진감 넘치는 현장이 마련된다. 여수세계박람회장 일원과 소호요트경기장에서 제10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이 열린다. 요트·핀수영·카누·트라이애슬론 등 정식 종목과 바다수영 번외 종목의 경기가 진행된다.

또한 세계청소년들의 흥겨움도 여수를 울적인다. 14일부터 16일까지 2015여수국제청소년축제가 이어진다. 댄스경연대회, 청소년 문화공연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숨겨진 끼와 톡톡 튀는 재치를 발산하며 유쾌한 여름 축제를 벌인다.

#섬과 숲이 만나는 강진

물과 숲이 만나 여름 무더위를 날린다. 바다 물놀이장이 없는 강진에 숲 속의 물놀이장이 준비됐다. 울창한 편백림의 운치



영암 '기찬 뒷길'.

가 있는 초당림이 그곳이다. 강진 칠량면 명주리에 위치한 초당림은 총 960ha의 규모로 백제약품 설립자인 김기운 회장이 50여년 전부터 조성한 전국 최대의 인공숲이다. 초당림이 감춰져 있던 속살을 공개하면서 강진의 여름 명소가 됐다. 숲길 테크 산책에 물놀이까지 더해져 여름 휴가를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오는 23일까지 운영되는 남성리 고성굴의 보은산 브이(V)-랜드 물놀이장도 숲과 계곡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 눈길을 끈다. 물놀이장 주변으로 숲 탐방로, 백련단지 등 사계절 꽃을 감상하고 걷을 수 있는 산책로가 곳곳에 조성되어 있고, 고성사와 영랑생가 등의 문화재도 접하고 있어 아이들의 교육현장으로도 좋다.



영암 '도갑사'.

바다 산책길도 사람들의 발길을 기다린다. 가우도의 출렁다리와 섬돌레길을 따라 여름 바다를 거닐어 보자. 영암 율터와 복합낚시 공원 등이 가우도의 매력을 더해준다. 청자의 고장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다. 가우도에서 차로 5분 거리에 고려청자 박물관이 있다. 마량 놀토 수산시장도 가우도에서 멀지 않다.

#월출산 기가 충만한 영암

월출산 자락에 자리한 기찬랜드에서 건강한 물놀이를 즐겨보자. 백반석 계곡에서



광양 백운산 진상면 '어지계곡'.



국제범선·세계청소년축제...

12일부터 바다의도시 여수 '들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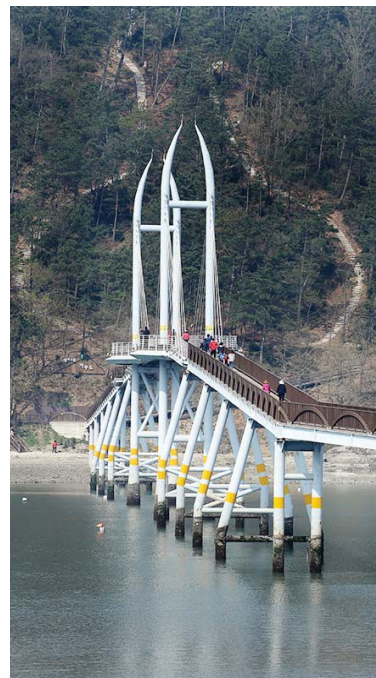
강진 초당림·가우도 섬돌레길

같은듯 다른 '운치' 매력

영암 월출산 고즈넉한 도갑사

천연 백반수 자연폴장서 '기' 충전

광양 백운산 4대 계곡 '신선놀음'



강진 가우도 '출렁다리'.

흐르는 천연 백반수가 기찬랜드의 자연형 폴장 6곳을 채우고 있다. 온 가족이 물놀이의 즐거움, 웰빙과 힐링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휴양지다. 약성 김창조 선생을 기리는 가야금 테마파크도 이용할 수 있다.

월출산의 기를 받으려 걷는 산책길도 좋다. 기가 가득 찬 산길이라는 뜻의 '기찬 뒷길'. 지상의 기(氣)를 모아 하늘로 솟구치는 형국의 월출산 기슭을 따라 조성되어 있다. 피톤치드가 풍부한 숲 속에서 월출산의 4기(영기·정기·생기·활기)를 느낄 수 있는 건강길이다. 월출산 천황서주차장에서 시작해 왕인박사 유적지와 미암에 이르는 100리 길에서 '4기'를 충전하자. 고즈넉한 산사의 산책도 좋다. 호랑이가 앞발을 들고 포효하는 형상의 산자락

아래 도갑사가 자리하고 있다. 해탈문(국보 제50호)과 마애여래좌상(국보 제144호), 석조여래좌상(보물 제89호), 5층 석탑(보물 제1433호) 등이 있는 유서 깊은 고찰이다. 도갑사를 둘러본 후 월출산을 등반하는 1박 2일 코스도 좋다.

#숲 속의 힐링이 있는 광양

물소리와 바람소리가 어우러진 백운산 계곡에서 여름을 즐겨보자. 특유의 풍광을 지닌 4대 계곡이 백운산 곳곳에 숨겨져 있다.

다압면 금천리에 위치한 금천계곡은 선녀가 내려와 베를 짜다는 옥녀봉에서 발원해 흐른다. 때문지않은 자연이 숨 쉬는 금천계곡은 섬진강의 절경과 조화를 이루며 멋진 풍광을 선물한다. 옥룡면 동곡리에 위치한 동곡계곡은 광양을 동천을 거쳐 광양만으로 흘러 들어간다. 백운산 계곡 중 가장 크고 길다. 교통이 편리하고 폭이 넓어 가족 단위 피서지로 인기가 높다.

도솔봉과 형제봉 사이에서 시작된 성불계곡은 조령리의 성불교에서 성불사 위쪽까지 약 2km. 4대 계곡 중 가장 아담하며, 기암괴석과 수려한 삼림 사이로 평평한 바위들이 자리한다. 진상면 어지리에 위치한 어지계곡은 울창한 원시림 사이에 위치했다. 맑은 물길을 따라 쉬어갈 수 있는 크고 작은 바위가 있다.

느긋하게 어머니의 품 같은 백운산을 만나고 싶다면 백운산 자연 휴양림에서 하루를 보내보자. 삼나무·편백 등의 인공림과 천연림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곳에서 느긋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TV 하이라이트



바로, 레이디제인에 “딱 내 스타일”

■MBC '세바퀴-친구찾기' (7일 오후 10시)

7일 방송되는 MBC '세바퀴-진구찾기'에서는 변정수·윤희중·이철민·고은미·진예슬·한시우·비로·은정·조세호·레이디제인이 출연해 화끈한 토크를 펼칠 예정이다. 이날 바로는 프로그램 내 호감도 조사에서 레이디제인을 뽑았다. 그는 그녀에게 "오래전부터 레이디제인 누나를 좋아했다. 내 스타일이다"라고 고백했다. 또 바로는 앞으로 홍진호와 함께 섭외가 들어오면 허허하니고 말하는 레이디제인에게 "앞으로 저랑 같이해요"라며 저돌적인 연하남의 모습을 보여 여심을 뒤흔든다.

진행을 맡은 신동엽은 레이디제인에게 홍진호
와 바로 중 한 사람을 꼽으라고 말해 레이디제인을
고민에 빠뜨린다.



리키김, 태오 식탐 잠재울 묘책은...

■ SBS 오! 마이 베이비(8일 오후 5시)

생강즙부터 정어까지 온갖 먹거리를 섭렵하며
남다른 먹성을 보여주었던 태오가 이번엔 신맛 아
이스크림에 호되게 골담 먹는 이야기가 펼쳐진다.
먹을 것이라면 생식도 마다하지 않는 태오의 식탐
이 커지는 가운데 아빠 리키வும் 각성이 커져간다.
친구들과 아이스크림을 나누길 거부하는 태오
를 보며 아빠는 아주 특별한 훈육을 계획했고, 결
국 양보하는 착한 어린이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태오의 아이스크림에 신맛이 나는 버터민 가루를
뿌린다.
흔히 욕심부리면서 먹는 아이스크림은 절대 달콤
하지 않다는 아빠의 깊은 뜻이 담긴 묘책.



2차대전 버마 정글속 위안부 삶 추적

■KBS 1TV 광복 70년 특집 다큐멘터리: 끌려간 소녀들 버마 전선에서 사라지다 (9일 오후 9시 40분)

1944년 8월, 미얀마에서 포로로 잡힌 위안부들 모습이 담긴 한 장의 사진이 발견된다. 일본군이 패전하고 퇴각한 뒤 숲 속에 버려진 위안부들이 연합군에 의해 발견됐다. 일본군 위안부의 존재가 처음으로 국제사회에 알려진 순간이다.

2차 대전 당시 버마는 격전지로 일본군 사이에서
는 ‘버마 지옥’으로 불릴 정도였다. 위안부들에게
는 더 혹독한 고통의 현장이다.

KBS 탐사보도팀은 태국에서 미얀마, 중국 윈난성까지 2차 대전 당시 ‘버마 전선’ 3개국 현지 취재를 통해 사진 속 위안부들의 실체를 추적했다.



김나인의 주말의 운세 7일(금)~9일(일)



건강 무난
재물 상승



건강 무난
재물 하락



신은 주안
재물 무난
안에 웃음
운일 있을



진공 수련
재물 무난

[illegible]

■ EBS/종합편성채널		■ 케이블/위성	
EBS	TJBC	캐논	텔레리자 TV
7:00 부릉! 부릉! 브루마즈	4:50 디덕의 송바	8:20 군도	11:00 투데이 해프라이프
8:30 바로로와 노래요	6:00 시청자 외화	10:40 명랑	16:00 제1회 강7도연평화장대
10:30 최고의 요리비결	7:00 미술탐험대	12:55 비취재	한국의자극성 첩보인사
11:20 하나뿐인 우리	3:00 아침 &	14:50 위클리광(2015)	17:00 2015 잔가 세븐티십
12:00 EBS 정오뉴스	9:10 날과 함께 시즌2	16:45 풀타임	3쿠션 첩보인사
10 문화유산 코리아	- 최고의 사랑	18:00 패션왕	23:30 2015 포토제 세계3쿠션
13:40 한국사 시간여행	10:30 남강고을 부락해	20:50 로맨틱레디스피	당구 월드컵
15:00 드래곤 길들이기	11:50 라스트	XTM	Mnet
30 화랑세기 과학소	14:35 뉴스 현장	8:00 코지제로	10:00 하트어택
16:45 할랄라 뽀빠에	15:50 4시 생방송 사건변장	9:00 GET IT GEAR	11:00 Mnet Music Twit
17:10 헬로! 코코콩?	17:10 장차부 외화	12:00 남아들의 동영상 링크소	13:30 올림피아드
18:05 아이리 스페이스 싱글	18:20 날과 함께 시즌2	16:00 가제트	15:30 수스타프K
19:00 두근두근 학교에 가면	- 최고의 사랑	18:00 헬로모바일 슈퍼미키스	19:00 자괴감소
50 장수의 비밀	19:40 JTBC 뉴스룸	20:00 더 지니어스: 게임의왕	23:00 Live on M
20:50 하나뿐인 지구	20:30 라스트	23:00 OPEN YOUR STAGE	23:00 쇼미더머니 시즌4
21:30 한국기행	21:45 남강고을 부락해	KBS 스포츠	내셔널지오그래픽
50 명의	23:00 마녀사냥	11:00 그레다 푸르르 날에	9:00 건강한 아침, 메디컬365
22:45 고전영화극장	24:35 라스트	13:00 슈퍼맨이 돌아왔다	11:00 와이드드 순간포착 (I)
		16:00 오윤부터 사랑해	13:00 슈퍼드나키
		17:00 그레다 푸르르 날에	14:00 아바나의 독사
		21:20 불꽃의 열매2	21:00 빅데이터 마인드
		22:40 1박2일 시즌3	22:00 프리리얼 와이드드 최후의
		24:10 해피투게더 시즌3	지상 누번, 북한
TV조선	MBN	MBC 드라마넷	복식TV
6:30 생방송 광화문의 아침	5:50 열린TV 열린세상	9:20 여자를 울려	9:00 민선 1기 주연을 할다다
8:00 내들 사랑 설맹서	6:50 굿모닝 MBN	12:00 비취재의 사랑	11:50 복식TV 뉴스
9:00 TV 조선 뉴스 9	8:00 여인의 창	13:20 여왕의 꽃	15:00 다다다 우리들의 쿼즈
10:00 김광익의 신통방목	매일경제	17:20 위대한 조강지처	17:20 복식TV 뉴스
11:20 삼척1단의 만물상	9:20 뉴스파워터	18:40 나 혼자 산다	19:00 WBC 전극뉴스노래대장
12:50 엄성진 정혜전의	10:20 전국네트워킹뉴스	20:00 여자를 울려	21:50 복식TV 뉴스
뉴스를 쓴다	11:50 뉴스쇼 토크미	23:30 위대한 조강지처	22:20 라이프스타일 정보
14:40 정재찬의 이현원의 사자	13:00 기막힌 이기기	SBS 드라마 플러스	투니버스
16:00 정성민의 시사평론	실제상황	11:50 돌아온 황금복	10:00 요괴워치
17:30 이수애결사 백담산	15:30 뉴스 BIG 5	12:30 동생들이 매 느리	15:00 안경사자 2
18:35 3488 우리	16:50 뉴스 & 이슈	15:00 아름다운 펜앤아 펜앤아	18:00 요괴워치
50 이것은 실화다	18:10 MBN 뉴스와이드	18:00 어머니들이 매 느리	20:00 막대뉴스-무작정여행한
20:00 정복판관왕 황금마차	19:40 MBN뉴스 8	19:10 자기가 변속난	21:00 정경자2015
21:30 TV조선 뉴스쇼 판	20:40 천하장사	22:00 윤율이	22:00 영웅이내나타났다오노!
22:50 TV조선 뉴스쇼 판	21:50 한겨레로 특종출생	23:20 돌아온 황금복	23:20 명예정국뉴스스페셜
23:00 예경동일 남남북녀	23:00 아이기		
시즌2	24:40 친구뉴스쇼 스페셜		
24:50 보름까지	1:00 소나무		

KBS 1	KBS 2	MBC	SBS	OBS	채널 A
5:00 KBS 뉴스 5:10 KBS 뉴스워킹 참TV 6:00 KBS 뉴스광장 7:50 남매의 장	6:00 국민대합창 우리歌 6:20 다큐 공감 (재) 7:10 2TV 저녁 생생정보	5:00 우리가 누락 우리로와 6:00 MBC 뉴스투데이 -1, 2부 7:30 MBC 월드 리포트	5:00 문화가계개 6:00 토요일 뉴스와이드 -1, 2, 3부	6:00 여행가 바다뽀 (재) 6:10 TV 주치의의 스페셜 7:50 OBS 애나빌드 스페셜	4:40 충격 실화극 싸인 (재) 6:00 TV주치의의 다터 지, 바, 고
8:30 새이여 토코소 황금연못 9:30 KBS 뉴스 9:40 걸어서 세계속으로	8:20 특파원 현장보고 9:00 인간의 조건	8:00 2015 메이저리그 강제중 출전 <피츠버그~LA다저스>	8:40 영재발굴단 (재) 9:45 동상익사 권광아 (재)	8:50 기(氣)한 처방전 <100세 푸드> (재) 9:50 BBC 휴먼기회 <내태평양> (재)	8:10 채널 A 뉴스 특보 9:30 뉴스특급
10:30 행복하든 지든 11:00 세계인 스페셜 (재) 11:05 다큐 공감 11:55 솔라	10:20 영화가 좋다 11:30 나를 돌아봐 (재)	11:30 나 혼자 산다 스페셜	10:50 짐작! 무비월드	10:45 멜로디유 <가죽> (재) 11:45 OBS 뉴스 11:55 로드의무 <만남>	10:40 구원의 밤상 (재) 11:50 이제 만나러 갑니다 (재)
12:00 KBS 뉴스 12:10 국회 한마당 1:00 TV비평 시청자 데스크	12:50 개그콘서트 (재)	12:00 MBC 뉴스 12:10 주말도전 스페셜 1:35 সুখমিনিসির্জ <밤을 걷는 선비> (재)	12:00 SBS 뉴스 12:10 월화드라마 <미세스 캣> (재)	12:50 행복 부동산 연구소 리포트 1:50 OBS 시네마	12:50 통일주간 생황백서, 잘 살아보세 (재)
2:00 헬로마켓 2 2:15 총지마 정신줄 2 2:30 아이라이거 2 3:00 야생왕기 (재) 3:15 광복 70년 특집 한국의 간장은 어떻게 변해왔나	2:25 수퍼맨이 돌아왔다	3:40 MBC 뉴스 3:50 쇼! 음악중심	2:25 랜난비 (재) 3:40 SBS 뉴스 3:50 아빠를 부탁해 (재)		2:50 아내가 불렀다 (재)
4:10 광복 70년 특별기획 태극드라마 징비록 5:00 KBS 뉴스 5:10 청년체포프로젝트 내 일을 부탁해	4:05 수목드라마 <여선비> (재)	5:00 주말결혼했어요	5:00 마이애미베이비	4:35 와이드 블랙박스 4:45 OBS 뉴스 4:55 여행 로드다큐 <도시산> 5:25 아시아 TOP 5 5:55 오빠들 결혼이슈 (재)	4:20 뉴스 스테이션 5:40 깨도난다
6:00 동행 7:00 KBS 뉴스 7:10 다큐 공감	6:05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 7:55 주말연속극 <파랑새의 집>	6:25 무한도전 7:55 MBC 뉴스데스크	6:25 놀라운 대회 스타킹	6:45 타쿠리마 <진심왕> (재) 7:45 OBS 뉴스 M	7:00 채널 A 종합뉴스
8:00 광복 70년 국민대합창 나는 대한민국 9:00 KBS 뉴스 9 9:40 광복 70년 특집 위대한 유산을 찾아서	9:15 연애가계개	8:45 주말드라마 <여자를 울려>	8:00 SBS 뉴스 8:45 동상익사 권광아 & 팬들	8:10 OBS 스페셜 9:10 전기기회의 씨뿌리뮤직	8:20 독한인생 서민잡지 9:30 통일준비 생활백서, 잘 살아보세
10:30 글로벌 정보소 세계인 11:45 콘서트 7080	10:25 청춘FC 헝그리 일레븐 11:30 인간의 조건	10:00 주말특별기획 <여왕의 왕> 11:15 마이 리틀 텔레비전	10:00 특별기획 <너를 사랑한 시간> 11:10 고지개 알고싶다	10:10 OBS 시네마 <식스센스>	11:00 나는 몸신이다
12:45 KBS 뉴스 12:50 T타임 1:20 일약특목 1:40 KBS 바둑왕전 3:00 야생왕기	12:50 영화가 좋다 (재)	12:40 라디오 스타 스페셜 1:35 스포츠 매거진 2:35 하루마루 사랑이 좋다 스페셜 3:25 통일전망대 (재) 4:05 고래발 & 공방이 좋다 스페셜	12:15 심야시각 1:15 웃음을 찾는 사람들 (재) 2:30 순간포착 스페셜 3:45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재)	12:00 프리마어 스포츠포지션 FLW (재) 12:55 개드 건초의 비밀 (재)	12:50 충격실화극 싸인 (재) 2:20 가둬쇼 X (재) 3:20 구원의 밤상 스페셜 레파리

■ EBS/종합편성채널		■ 케이블/위성	
EBS	JTBC	캐시온	벨리어드 TV
6:30 다문화 '사랑'	7:00 미술탐험대	6:30 내심장속까지	8:00 2015 포스트 세계3쿠션
7:00 마차와 금	8:00 신인류 시공문	8:15 통라제레:스파이케스트	단구 월드컵
8:00 코코보3	9:00 남과 함께 2 최고의 사랑	9:30 기술자들	11:00 투데이 해피리포트
8:30 모여라 댕댕동	스페이스	12:55 장미여로	21:00 투데이 하트메이킹 서울강구연맹
9:00 로보가 풀리	10:15 비정상회담	14:20 패딩턴	그랜디 2015 개를3쿠션 대회
10:20 청각전자	11:45 냉정공을 부탁해	17:55 대가족:가계부달자	23:30 제1회 경구대통령청화병
메이플공대	13:00 뉴스 현장	23:30 나이트크롤러	한국여3쿠션 챔피언십
11:00 지미미러스	20 라스트	XTM	Mnet
30 글로벌 프로젝트 나눔	14:35 학교 다녔으습니다 스페셜	9:00 갯잇가이	8:20 M morning
15:00 최초의 오리비결	15:50 냉정공을 부탁해	12:00 SNL KORE	9:00 47키자루
15:00 사선서적	17:10 JTBC 뉴스룸	14:00 가제트	10:00 하트메이킹
<해운대를 지켜라>	50 2015 동아시안컵	17:00 갯잇가이	16:00 나의 목소리가 보여
17:35 한 칸의 차이	<한국·북한>(여자)	18:00 가제트 BEST	17:30 열악모터타운
18:40 한국구경	20 라스트	20:00 갯잇가이	19:10 슈미트&K Before & After
20:15 다들 나와고 열친	21:45 네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23:00 남자들 동영상 켜크소	21:50 쇼미더머니
21:05 세계전문록 아틀라스	23:00 라스트	KBS 스포츠	내셔널지오그래픽
22:35 장수의 비밀	1:10 2015 동아시안컵	8:00 그랜드 푸르는 날에	9:00 건강한 아침, 메디컬365
23:05 세계의 영화	<중국·일본>(여자)	11:20 슈퍼맨이 돌아왔다	11:00 와일드 순간포착
		14:00 파랑새의 집	14:00 위키토 투나
		16:05 1박2일 시즌3	17:30 이것은 설화다
		18:15 아셈블리	20:00 아시아 퀘런
		23:30 개구리맨이 돌아왔다	21:00 순간강제위험한 동물들
		23:40 나 혼자서	23:00 크루소스
TV조선	MBN	MBC 드라마넷	복지TV
5:00 남잔과 논리가 있는	5:00 성공다국 최고다	8:10 이브의 사랑	9:50 다다다 우리말 퀴즈
토코쇼 난생전격	40 MBN 경제플러스	9:50 여자를 울려	11:50 복지TV 뉴스
6:00 덕덕의 남장고	6:20 알지기의 재량	12:30 막내 같을 날	14:50 일일드라마 > 내일은 맑음
7:00 휴먼다국 달콤한 인생	7:30 휴먼다국 사노라면	15:30 발을 걷는 신비	17:50 복지TV 뉴스
8:00 영마의 불발	8:40 MBN 뉴스와이드	18:00 여자를 울려	17:50 TV 메디컬 케어
9:00 뉴스 토요일극	10:00 아침의 창 매일경제	20:40 무한도전	19:50 강성토코<청춘아>
10:10 토요 신동행동	11:20 가막한 이야기	23:40 나 혼자서	21:50 복지TV 뉴스
11:40 애정돌발 남남북녀	실재상	SBS 스포츠 플러스	투니버스
13:10 대결전	14:00 고수의 비법 황금알	6:50 당신을 응원합니다	8:00 만영자주어2
14:40 솔라인 연애토크 호박씨	15:50 알지기의 재량	11:20 아름다운 용금복	9:00 마이클스:무작정어려단
16:10 뉴스 토요일극	17:00 시사토크	18:00 돌아온 네 머느리	14:00 장꾸는 코발터14
17:10 이몽구의 정복유대국	18:20 천기누설	15:00 미세스	17:00 명탐정강조국강박
19:00 TV조선 주말 뉴스 토코	19:40 MBN 뉴스 8	17:00 아빠를 부탁해	19:00 장꾸는노트발자X파라
20:00 간격들	20:30 나는 자연인이다	19:10 너를 사랑한 시간	20:00 연애자주어2
21:30 삼림영웅의 만물상	21:40 속돌로스 통치미	23:10 동생이랑 갯잇가이 켜막아	22:00 정경고과제
23:00 내내 사옹 왕국	21:50 천기누설 스페셜		
24:30 헬로 차이나	1:10 헬로 노트드 쇼츠날		
	2:10 나는 자연인이다		

KBS 1	KBS 2	MBC	SBS	OBS	채널 A
5:00 KBS 뉴스 5:05 생로병사의 비밀 (재) 6:00 KBS 뉴스 6:10 글로벌정보쇼 세계인(재) 7:05 TV회고록 올림	6:00 야생일기 6:10 생생 정보 7:00 KBS 일요 뉴스타임 7:40 영상앨범 산	5:00 MBC 네트워크 특선 5:05 뉴스부부 인생 6:20 시간여행 그랜트 개잡지 7:00 MBC 뉴스 7:10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	6:00 SBS 뉴스 6:10 생활의 달인 스페셜 7:20 일요특선 다큐멘터리	6:00 사람, 산 (재) 6:50 OBS 초대석	4:40 나는 물이다(재) 5:50 갈대까지 가보자 (재) 7:00 신 대동여지도
8:00 KBS 뉴스 8:10 일요잔란 9:00 이웃집 찰스 (재) 9:55 광복 70년 국민대합창 ~는 대한민국	8:10 체인지업 도시탈출 9:00 1박 2일 (재)	8:00 해피타임! 9:15 복판가랑 스페셜	8:20 짝꿍이 잘사는 법 식사하셨어요? 9:30 TV 동물농장	8:00 위대한 자연 8:55 아웃도어클럽 9:55 폰스타 <전당포 사나이들> (재)	8:10 선데이 뉴스 쇼 9:30 뉴스 특급
10:55 TV쇼 진품명품 11:55 송 더	10:35 출발! 드림팀 시즌 2 11:50 해피투게더 스페셜	10:45 신비한TV 서프라이즈	10:50 정글의 법칙	10:45 출격하거 영화왕국 (재) 11:45 OBS 뉴스 11:55 다큐다라마	10:40 두근두근 카메라 미.사.고 (재) 11:50 아내가 뽀났다 (재)
12:00 KBS 뉴스 12:10 전국 노래자랑 1:20 스퀘어드	1:20 청춘 FC 청그리 일러본	12:00 MBC 뉴스 12:10 출발! 비디오 여행 1:15 월화특별기획 <화장>(재)	12:00 SBS 뉴스 12:10 특별기획 <나를 사랑한 시간> (재) 1:15 드라마스페셜 <용팔이> (재)	12:55 리얼대탐험 1:50 OBS 시네마 (재)	1:20 토크쇼! 생활백서, 잘살아보세
2:10 KBS결착 다큐멘터리 3:00 세간의 스페셜 (재) 5:05 야생일기 (재) 3:15 광복70년 특집 한국인의 건강은 어떻게 변해 왔나	2:25 주말연속극 <파랑새의 집>(재)	3:35 MBC 뉴스 3:45 섹션TV 연예통신	3:30 SBS 뉴스 3:40 SBS 인기가요	3:45 억울도 블랙박스 3:50 휴먼로보 <360- 지구 한바퀴>	2:50 이제 만나러 갑니다 (재)
4:10 걸어서 세계속으로 5:00 KBS 뉴스 5:10 미디어 인사이드 5:40 동물의 왕국	4:50 해피 선데이	4:50 일밤 - 복면가왕 ~친자사이~	4:50 일요일이 좋다 ~이빨을 부딪해	4:45 OBS 뉴스 4:55 엔터파워 보스 넥스트5 5:50 윤리경 <이것이 인생> (재)	4:20 뉴스 뱅크 5:40 채널A 뉴스TOP10
6:00 황금의 팬타곤 3 7:00 KBS 뉴스 7:10 로동 골든벨	7:55 주말연속극 <파랑새의 집>	7:55 MBC 뉴스데스크	6:10 일요일이 좋다 ~란남편	6:50 감성여행 <우리가 만난 세상> 7:45 OBS 뉴스 M	7:00 채널A 종합뉴스
8:00 궁극한 일요일 정영실 쇼 9:00 KBS 뉴스 9 9:40 광복70년특집 골라잡이쇼 ~매바전선에서 시작되다	9:15 개그 콘서트	8:45 주말드라마 <여자를 울려>	8:00 SBS 뉴스 8:45 웃음을 찾는 사람들	8:10 연예매거진 <좋은 일, 나쁜 일, 수렁한 일> 9:10 명불허전	8:20 두근두근 강동커메라 미.사.고 9:30 아내가 뽀났다 (재)
10:30 역사저널 그날 11:20 취재파일 K	10:55 다큐멘터리 3일 11:55 아승포유	10:00 주말특별기획 <여왕의 꽃> 11:15 시사매거진 2580 (재)	10:00 특별기획 <나를 사랑한 시간> 11:10 광복70주년 특집다큐 통합의 조건	10:10 OBS 시네마 (재)	11:00 이제 만나러 갑니다
12:00 스포츠 아이기 운동화 2.0 12:50 KBS 뉴스 12:55 문화파병 대 콘서트 (재)	12:55 이웃집 찰스 (재)	12:05 세바퀴 스페셜 1:20 황개사는 세상 해방프로 젣트 나누면 행복 스페셜 2:25 뉴스인생 (재)	12:10 자기가 ~백년손님 (재) 1:25 네트워크 특선	12:55 정거한의 씨네마유지 1:55 OBS 스페셜	12:40 특한인생 서민잡지 (재) 1:50 갈대까지 가보자

[illegible]

경인일보를 CJ헬로TV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안내 : CJ헬로TV 데이터방송 메인 → 게임&조이 채널 → TV신문)

한국역리연구소 (031)237-0693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천대받던 옛 이야기들의 ‘인생역전’

차이나 Story

<4> 중국의 소설을 통해 본 대중문화

근대이전 하층은 글로 취급
송대 이르러 오락거리 유형
현대 TV·영화 소재로 인기

경인일보, 인천대학교 중국학
술원, 계양도서관 등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중국 인문학 강좌 ‘차이
나 스토리’의 네 번째 강좌가 6일
오후 7시 인천 계양구 계양도서관
지하 계수나무홀에서 열렸다. 중
국 소설을 연구하는 박계화 연세
대학교 강사(문학박사)가 ‘중국의
소설을 통해 본 대중문화’를 주제
로 강연했다.
■다음은 강연요지
근대 이전 중국에서의 ‘소설(小
說)’ 개념은 현대의 ‘소설(Fictio
n, Novel)’과 다소 차이가 있다.

중국 소설은 공자(孔子) 같은 사상
가의 철학이 담긴 경전(經典) 등과
상반되는 말로 ‘작고 하찮은 말’,
‘자질구레한 이야기’라는 의미다.
오랜 기간 정통문학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신세였지만, 공자가 “볼
만한 것이 있다(必有可觀者焉)”고
언급했듯이 소설 속에는 인간의
삶과 욕망이나 호기심이 반영돼 있
는 중국인 일상의 작은 즐거움이
있다.
송나라(960~1277년) 이후 도시
경제가 발전하고 서민들의 오락 거
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서민
들 사이에서 소설은 크게 유행했
다. 소설의 범위는 생활 전 영역에
이르고 있지만, 대중의 사랑을 가
장 많이 받은 소재는 남녀의 사랑
이야기와 현명한 판관이나 협객들
이 억울한 상황을 해결해주는 이
야기였다. 당나라 황제 현종과 양



6일 오후 인천 계양도서관 지하 계수나무홀에서 박계화 연세대 강사가 ‘중국의 소설을 통해 본 대중문화’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계양도서관 제공

귀비의 절절한 사랑 이야기인 ‘장
한가전’은 희곡 작품으로 제작작
돼 수없이 공연했다.
소설은 현대 중국 대중문화의
단골 소재이기도 하다. 귀신과 인
간의 사랑을 그린 영화 ‘천녀유혼’
은 청나라 소설 ‘요재지이’에 나오
는 설소전 이야기를 토대로 만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큰 인기를 끈
드라마 ‘판관 포청천’도 소설의 이

야기를 가져온 것이다.
고전 속 자질구레한 옛이야기들
이 중국 현대 대중문화 소재가 되
는 것을 보면, 소설이 중국인들의
문화적 원형으로 뿌리 깊게 자리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대 중
국의 대중문화와 중국인의 문화
심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옛이야기, 즉 소설에 대한 이해가
필수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인천대·계양도서관·경인일보 공동개최

부평문화의거리 주차불편 ‘해법’

구, 6480만원 투입... 이용객 최대 1시간까지 요금 지원

부평구는 ‘부평문화의거리’ 주
차시설 부족에 따른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시행, 주변 사설 주차장 이용 구민
에게 주차요금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부평구는 땅값이 비싸 공영주차
장을 건립하지 못하고 있는 부평 최
대의 상권 부평문화의거리의 주차
난 해결을 위해 8월부터 국비 3천
890여만 원 등 총 6천480만원을 들
여 ‘주차환경개선사업’을 벌인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부평문화의거리 주
변 점포에서 물건을 구입한 고객이
인근에 위치한 사설주차장(편 주차
장, 부평문화로 65번길 37)을 사용
하면, 국비 등으로 주차요금 일부

를 대납해 주는 것이다.
부평문화의거리를 이용한 고객
이 물건을 구입한 점포에서 주차구
폰을 받아 주차장에 제출하면 당일
최대 1시간(30분 1,000원, 60분
2,000원)까지 주차요금을 지원받
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부평문화의거리 일
대는 부평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
은 지역이어서 공영주차장 건립이
매우 어렵다”며 “주차시설 부족에
따른 고객 불편 문제가 다소나마 해
결돼 침체된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
혔다. 한편 부평문화의거리 주차환
경개선사업은 8월부터 12월말까지
시행(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할 예
정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점통더위 가축관리요령 홍보
강화군, 농가 냉방시설 점검

인천 강화군은 최근 폭염으로 가
축 폐사 등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 농가에 대한 가축관리 요령과
냉방시설 점검 등을 강화하고 있다
고 6일 밝혔다.
가축의 여름철 관리 요령으로 소
의 경우 깨끗하고 시원한 물을 충
분히 먹도록 하고, 천장이나 벽에
열막이 재료를 부착해 태양열을 차
단해야 한다.
또한 비타민과 광물질을 사료에
섞어 먹이고, 소금은 자유롭게 먹
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군은 당부
했다.
돼지 농장 안에 송풍기 또는 대
형선풍기를 설치하고, 천장에는 물
안개 살포장치를 설치해 지붕에 물
을 뿌려 축사내 온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료는 1주일분 정도씩 구매해



상한 사료를 먹이지 않도록 주의해
야 한다.
닭장 안의 환기는 자연환기보다
는 환풍기 등 강제통풍을 하고 닭
장 지붕 위에 물을 뿌려 복사열을
막아줘야 한다.
또한 적정 마릿수 유지와 시원한
물을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해주
는 것이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한여름 무더위로
인해서 가축 폐사와 발육저하, 번
식률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며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여름철 가축관리요령에 따라
가축을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
부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

세계적 발레·오페라 ‘온 스크린’

인천 평생학습관
은 여름방학과 휴가
철을 맞아 서울 예
술의전당 우수 공연
이 담긴 영상을 4차
레 상영한다고 6일
밝혔다.
상영작들은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된 우수
하고 인기있는 발레·오
페라·연극 작품으로 이
뤄졌다.
관객들은 가로 7m와 세
로 6m의 대형 스크린을 통
해 출연진들의 생생한 표정
과 몸짓을 감상할 수 있다.
평생학습관은 거리와 시
간상의 문제로 예술의전당
공연을 접하지 못하는 인
천 시민·학생에게 수준높

인천평생학습관, 영상 사업
예술의전당 우수공연 상연
명저 6권 인문학 특강까지
은 작품 감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예술의전당의 ‘공연영상화사업’(S
AC on SCREEN)을 유치했다고 설
명했다.
예술의전당 측이 상영 작품과 일
정을 선정하고 상영 장비와 인력 파
견 등 행사 전반을 담당한다.
인경식 평생학습관장은 “영상이
공연 전체와 부분을 조화롭게 담아
마치 공연장 VIP석에서 감상하는
느낌을 줄 것”이라며 “많은 시민 학
생이 클래식을 감상하며 무더위를
이겨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인천평생학
습관은 다음 달 2일부터
‘세계 명저(名著) 다이제
스트 산책’을 주제로 인
문학 특강을 실시한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김
정겸 교수의 강연으로 진
행되는 이번 특강에서는
‘도덕경’·‘꿈의 해석’·‘제
물론’·‘문학의 숲에서 나
이테를 읽다’ 등 6권에 책
에 대한 교육이 실시될 예정
이다.
인천평생학습관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계기로 인
문학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
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
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032-899-1517 /김주영기자
kij86@kyeongin.com



‘치카푸카’ 치아튼튼 구강교육

강화군보건소 28개기관 대상
첫출질 실습·불소 도포 실시

인천 강화군 보건소는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관내 28개 기관을 직접 방문, 1
천여 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찾아
가는 치카 푸카’ 구강 보건 교육을
한다고 6일 밝혔다.
‘찾아가는 치카 푸카 교실’은 평
생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향상을 위해 군 보건소에서 관
내 유아 보육기관을 직접 찾아가 치
아관리법에 대한 교육과 함께 칫솔
질 실습, 불소 도포 등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군은 ‘치아를 알아요’ 라는 프로
그램으로 구강교육과 함께 만 3세
이상 아동들이 참여할 수 있는 치아
나라 체험부스도 운영한다.
또한 체험부스에서는 치아 물감
놀이(세균막 검사), 치카 푸카(이
닻기), 치아 튼튼(불소도포), 치아
사랑 캐릭터(판박이놀이)를 체험할
수 있으며, 칫솔 등 구강위생용품
과 부채도 받을 수 있다.
강화군보건소 관계자는 “아동
스스로 건강한 치아를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
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

강소농 20명 정보화 교육
사진편집·앱 활용방법 등

인천시 농업기술센터는 강소농
의 스마트한 농업 경영을 위해 지
난 7월 30일부터 8월 6일까지 3회
에 걸쳐 인천 관내 강소농 농가 20
명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
시했다.
강소농(強小農)이란 말 그대로
작지만 강한 농업을 의미한다.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교육, 컨
설파를 통한 역량강화로 우리나라
농업의 경쟁력을 기르기 위한 정부
의 지원정책이다.
이번 강소농 정보화 교육은 강소
농 농장주가 스마트기기를 이용해
농가경영 및 영농일지를 실시간으
로 기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사진
편집과 메모기능을 습득하고 농업
현장에서 필요한 필수 어플케이
션의 활용 방법 등을 익히는 방식으
로 진행됐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
육을 통해 인천 관내 강소농들이
소비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전략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는 좋은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김종호기자 boq79@kyeongin.com

성공적인 광고 마케팅을 약속합니다.
인천이 달린다. 광고가 달린다.



지금 지하철 광고에 만족 하십니까?

2,176대 모니터를 통해 시선을 사로 잡는 “지하철 광고”
인천의 시민의 자부심, 인천지하철은 (주)한국지하철방송과 함께합니다.

한국지하철방송
지하철 광고 전문기업



왜? 지하철인가?

지하철 이용 고객증가 / 대중교통 부담을 중 지하철이 34.8% 가장 높음. 1일 35만명 이상 이용(인천).
지하철 차내 월등한 광고 효과 / 광고 접촉도, 주목도가 가장 높은 장소는 80.4%가 지하철 차내 라고 응답.
지하철 광고 접촉태도와 신뢰감 / 차내광고 노출시간이 길고 보기가 자연스러워 광고 내용 전체가 잊혀지지 용이함.
제품, 서비스 구매력 증가 / 광고 신뢰도가 61.1%로 제품구매 및 서비스 구매에 큰 영향을 미치고있음.(약 32.8%)

- 한국지하철방송은 인천지하철 내 LCD 영상 광고 방송을 운영.
- 2,176대 모니터를 통해 인천시민들에게 동영상 정보를 제공.
- 기업 홍보영상, CF, 이벤트 영상 전담 제작팀 운영, 영상 제작 토달 솔루션 제공.

부평, 동수, 부평상거리, 간석오거리, 인천시청, 예술회관, 인천터미널, 문학경기장, 선학, 신원수, 국제 1호선 환승 구간, 국제업무지구, 센트럴파크, 인천대입구, 지식정보단지, 테크노파크, 컴퍼스타운, 동막, 동춘, 원안재, 인천1호선, 공항철도 환승 구간

광고 및 영상제작 문의 / (주)한국지하철방송 ■ 전화 : 1599-2014 ■ 이메일 : subwaytv@naver.com ■ 홈페이지 : www.subwaytv.co.kr

정남산단 조성 “교통대란·상습수해 불보듯”

<화성 음양리·내리·덕절리 일원>

주민, 합동설명회서 82번 국도 등 확·포장 요구

하천범람·농경지침수 우려… 대책 마련 촉구도

SK건설이 추진하고 있는 ‘화성 정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인근 주민들이 녹지파괴에 따른 기온 상승과 주변 교통체증을 불러오고 수해마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5일 오후 화성시 정남면사

무소에서 SK건설이 연합동설명회에서 음양리·내리·덕절리 주민들은 조경수를 키우던 녹지를 하루 아침에 6천500명이 출퇴근하는 산업단지로 조성하면 엄청난 교통체증에 시달리게 된다며 주변 82번 국도를 비롯해 310번, 314번 도로

를 확·포장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주민들은 현재도 주변 공장 난립으로 출·퇴근 시 심각한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조립지를 통째로 공장지대로 탈바꿈시키면 최악의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4차로 이상의 확장을 주장했다.

이들은 또 56만9천㎡의 녹지를 걷어내고 아스팔트 콘크리트 공장지대로 조성하면 별안간 빗물 고속도로가 생겨나 아래쪽 음양리 마을

은 하천 범람과 농경지 침수 등 심각한 수해를 겪을 우려가 높으며 집까지 2곳은 형식에 불과한 만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정남면의 허파나 다름없이 조경수를 키우던 곳을 산단으로 변경하면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로 기온상승 등 이상 징후가 발생돼 주민 생계에도 심각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SK건설 측은 “현재는 환경영향평가 초안 수준이어서 오

늘 설명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토록 하겠다”면서 “환경영향평가 본안에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내용이 담기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SK건설은 정남면 음양리 632일원 56만9천791㎡(약 17만3천평)에 2천750억원을 투입해 2019년까지 민간개발방식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해 분양할 방침이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체육공원 자재입찰 특정업체 밀어주나

시흥시, 인조잔디 요건 강화
한 곳만 총족 특혜의혹 제기

시흥시가 정왕동 체육공원 야구장 개선사업과 관련한 6억원 대의 관급자재(인조잔디) 입찰 과정에서 국내의 한 업체에서만 생산·인증받은 제품을 입찰 조건으로 제시해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6일 시흥시와 동종업체 등에 따르면 시는 정왕동 2156 일원에 조성된 정왕동 체육공원 야구장의 길이를 90m에서 110m로 늘리고 구장 바닥(1천50㎡)에 인조잔디를 설치하는 시설 개선작업을 벌이기 위해 지난달 27일 입찰공고를 냈다. 총사업비는 16억3천800여만원(공사도급액 5억6천700여만원, 물품액 10억7천100여만원)이다.

시는 야구장 바닥면에 설치될 6억3천800여만원에달하는 인조잔디 구매 입찰공고를 내면서 제조물품 조건을 KS 인증업체로 제한했다. KS 인증업체는 국내에 10여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는 여기에 녹색기술인증과 PE코팅이란

입찰조건을 추가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 같은 인증을 받은 국내 업체는 단 한 곳(A사)밖에 없어 업계의 통상적 물품계약이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동종업체의 한 관계자는 “수년 동안 인조잔디 사업을 하면서 이번과 같은 입찰 공고는 처음 봤다”며 “녹색기술인증과 PE코팅 조건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곳은 국내에 단 한 업체밖에 없다. 입찰에 참여하더라도 조건에 맞는 업체의 물건을 구매해 납품하든가, 해당 업체 측에 물품 납품을 협의 의뢰할 수밖에 없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녹색기술인증 등에 대한 자격요건을 둬으로써 경쟁 자체가 불가능하다. 결국 특정 업체만 돕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환경부에서 녹색제품을 우선 구매하라는 공문이 계속 내려오고 있다. 이에 입찰조건에 해당 사항을 넣었다. 업체로 선정되면 녹색기술인증과 PE코팅 제품을 구매해 납품하면 된다”고 말했다.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GTX·전철 3호선 파주 출발 ‘허하라’

‘GTX, 3호선 파주출발 시민추진단’은 6일 GTX 파주출발 11만인 청원서를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광선 추진단장 등 대표단 8명은 이날 청원서를 국토부 여형구 제2차관에게 전달하고, 일산 킨텍스에서 서울 삼성동까지 계획된 GTX ‘A’ 노선을 운전인 도시까지 연장해 파주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단장은 “정부의

서의 청와대·기재부·국토부 전달은 파주출신 새누리당 황진하 사무총장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단장은 황 총장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기재부·국토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GTX 파주출발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GTX 파주출발 11만인 청원서’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수도권을 1시간 이내로 연결하는 GTX는 관련 법안 ‘대도시

추진단, 11만인 청원서 靑·기재부·국토부에 전달

주택정책으로 조성된 수도권 서북부 최대규모의 운전신도시가 성공하려면 GTX 파주 출발은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제2차관은 “국토부에서도 GTX 파주연장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현재 용역 중인 ‘GTX 기본계획’에도 파주구간을 포함 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며 “GTX 기본계획 확정을 위해서는 기재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력이 필요한 만큼 파주시도 관계기관 협의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GTX 파주출발 11만인 청원

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시행령’에 전체 구간을 50km로 제한하고 있어 계획 단계에서부터 파주시가 제외됐다. 시는 이에 따라 법 개정을 요청하는 파주시민 10만인 청원서를 박근혜 대통령직인수위와 국토부에 제출하는 등의 노력으로 2014년 3월 31일 관련 법이 개정돼 GTX 파주건설의 걸림돌을 제거했다. GTX 파주연장은 2013년 한국교통연구원의 비용 대비 편익분석(B/C) 결과 1.11로 나와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지난달 20일부터 20여일 가까이 고장이 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내소 제1공영주차장 무인주차시스템의 주차권 발권기의 안내문을 민간위탁업체 관계자가 가리키고 있다.

의왕 공영주차장 잦은 고장 ‘뒷집’ 비난

민간위탁사 영업피해 발생
시 “수입부품 조달 어려워”

의왕시와 의왕도시공사가 민간에 위탁한 공영주차장 주차시스템의 잦은 고장으로 영업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나몰라라 해 민간위탁업체가 반발하고 있다.

6일 내소 제1공영주차장 위탁업체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주차장의 주차권 발권기가 고장 나 시간별 주차가 불가능하다. 위탁업체는 시와 도시공사에 수차례 조속한 수리를 요청했지만 “수리업체에서 고장난 부품을 수입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대답만 돌아온 뿐 구

체적인 대안을 듣지 못하고 있다.

내소 제1공영주차장과 같은 주차시스템을 사용 중인 내소 제2공영주차장도 발권기가 고장 나 현재 무료 개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달에는 내소 제1공영주차장의 무인요금정산기가 고장 나 주차장을 1개월 동안이나 무료 개방하기도 했다.

문제의 내소 제1·2공영주차장 주차시스템은 지난 2009년 11월 포일자 아파트를 재건축했던 조합별 주차가 불가능하다. 위탁업체는 시와 도시공사에 수차례 조속한 수리를 요청했지만 “수리업체에서 고장난 부품을 수입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대답만 돌아온 뿐 구

의 민간 위탁대행료가 연간 3천500만원에 불과한 반면, 무인 주차시스템 교체비용은 위탁대행료의 두배가 넘어 선뜻 교체에 나서지 못하고 있으며 영업손실 보상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위탁업체 관계자는 “시와 도시공사가 주차장을 민간위탁 했으면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운영이 되도록 적극 나서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수입부품 조달이 어려워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다”며 “내년에 무인주차시스템 교체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왕/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서정리역 관광안내 표지판
평택시-코레일 철거 갈등

평택 서정리역에 설치된 관광안내 표지판 철거를 놓고 평택시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마찰을 빚고 있다.

6일 평택시에 따르면 시는 지역방문 외국인과 외국인들에게 안내관광지를 홍보하기 위해 지난 2009년 8월 코레일 수도권남부지사와 협의, 시 예산을 들여 서정리역과 진위역에 각각 관광안내 표지판을 설치했다. 관광안내 표지판은 서정리역출입구에 가로 2m, 세로 1m50cm의 벽면 부착용이, 진위역에는 역사광장에 가로 2m65cm, 세로 2m의 지주형이 각각 설치됐다. 하지만 최근 코레일 서정리역사가 자체적으로 역사 내 환경개선사업을 벌이면서 해당 관광안내 표지판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철거하겠다는 방침을 밝히 시와 마찰을 빚고 있다. 서정리역

사 측은 지난 5일 시청 담당자에게 공문도 없이 전화로만 자진 철거를 요구한 뒤 6일 오전 철거를 강행하겠다고 시에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는 담당 부서와 공문을 통한 협의 절차를 거친 뒤 관광안내 표지판 철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전 협의를 통해 설치한 관광안내 표지판을 협의도 없이 전화 한통만으로 철거하겠다는 방침은 납득하기 어려운데 이전도 아닌 철거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더욱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서정리역사 관계자는 “역사 환경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청 담당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고 다른 시설에 대한 철거가 이뤄지고 있어 철거를 강행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다”며 “시와 협의를 거쳐 철거 혹은 디자인 및 위치 변경 등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평택/김종호·민용기기자 muk@kyeongin.com

자연친화·환경보전·생명존중의 생명공학기업 [주]넬바이오텍

품질관리우수업체(KVGP)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벤처인증 기업

조달등록제품

클린왕

클린왕 CLEANWANG

클린왕은 암모니아 가스 및 황화수소 가스를 화학적 침전법으로 침전시켜 살포후 악취가스가 신속하게 제거되는 가스제거제로서 항생물질, 소독약과 혼용이 가능하며 추운 동절기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클린왕은 생산성 향상, 호흡기질병 감소, 약품비 절감, 작업환경 개선등의 효과가 있는 친환경 악취제거제입니다.

● 암모니아, 황화수소 가스 제거

● 신속한 악취제거로 환경 개선

● 질병발생 감소 및 생산성 향상

● 인체 및 축체에 안전한 제품

적용사업장 : 양돈장, 양계장, 비료제조공장, 분뇨/하수처리장, 쓰레기처리장등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의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

NEL [주]넬바이오텍

연락처 : TEL. 031-674-0531 팩스 : 031-674-0534

www.nelbio.com

판매원: 석천씨씨 주식회사

특허등록 0530855

금연구역에 버젓이 재떨이 대한민국은 ‘흡연무법지대’

금연단속 2년... 경인지역 업주 과태료 부과 18건 그쳐
음식점 “신고 안하면 피워도 상관없다” 종이컵 주기도

“흡연 가능합니다. 신고만 하지 말아주세요” 지난 5일 오후 10시께 안양시 관양동의 한 찜치 전문점은 방마다 매개한 담배 연기가 가득했다. 올해부터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 등에서 금연해야 하지만 손님들은 거리낌 없이 담배를 입에 물었다. 음식점 내 칸막이식 톱의 미닫이 문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연기가 새어나와 홀에 있는 손님들은 눈살을 찌푸렸다. 찜치전문점 관계자는 “방 안에서 피우는 것은 상관 없다”며 “대신 재떨이는 줄 수 없고, 종이컵을 나눠주고 있다”고 귀띔했다.

같은 시각 수원시 인계동의 갈비집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방 안에서

식사를 하는 손님들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흡연하고 있다. 담배를 피우던 김모(30)씨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피우는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냐”고 되물었다. 반면 비흡연자 이모(30)씨는 “담배 연기 때문에 밥맛이 떨어질 정도”라고 말했다. 인천시 구월동 유흥가에 널린 이른바 ‘룸(Room)’ 식 주점들도 흡연자들에게는 천국이다. 칸막이만 설치됐을 뿐 담배 연기는 룸 곳곳을 오가고 있었다. 종업원은 “단속을 나오느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마음놓고 담배를 피워도 된다”고 말했다. 지난 2013년 첫 금연단속이 실시된 이후 2년, 흡연 무법지대가 생겨

나고 있다. 룸 형태의 공간이 마련됐거나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음식점은 물론이고 카페, 노래방에는 아예 재떨이가 비치돼 있다. 특히 지자체 단속반원들이 업주는 처벌하지 않고 흡연자만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흡연가능 업소들이 뿌듯해지고 있다. 실제 지난해 경인지역에서 흡연자를 상대로 한 금연단속 건수는 1만건을 넘지만, 업소(업주)를 상대로 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경기 13건, 인천 5건에 그쳤다.

복수의 지자체 관계자는 “음식점 내 흡연은 야간시간 대에 발생하는 데, 단속반원이 부족해 일일이 찾아다니기 어려워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해명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금연단속과 관련한 예산 증액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강영훈·김주영기자 kyh@kyeongin.com



폭포수 아래 폭염은 없다 수원, 이천, 과천의 낮 최고기온이 35도까지 오르는 등 경기 일부지역에 폭염 특보가 내려진 6일 오후 과천 관악산 계곡을 찾은 피서객들이 시원한 폭포 줄기를 맞으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하태형기자 hath@kyeongin.com

성범죄교원 교육 현장서 ‘퇴출’

도교육청, 품위유지 위반 명확한 징계기준 개정기로

경기도교육청이 성범죄 교직원을 교육 현장에서 퇴출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최근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에서 교사들이 학생과 여교사를 상대로 연쇄 성추행, 성희롱 등의 사건을 저지른 것을 계기로 성범죄나 부적절한 성관계에 연루된 교직원을 퇴출할 수 있는 강력하고 세부적인 징계양정 기준을 마련 중이라고 6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특히 그동안 성범죄 합의 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경우

명확한 징계 기준이 없어 상당수 교직원들이 교단에 다시 설 수 있었던 관련법을 개정해 사전에 차단하는 방침이다. 또 현행 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세부기준에서는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이외의 성 관련 사건의 경우 ‘기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만 분류돼 있다. 이 때문에 교직원과 학생, 교직원과 교직원, 교직원과 학부모 간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징계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성관계라도 부적절한 관계는 품위유지 위반으로 간주해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세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가해자 측이 피해자나 신고자, 증인 등을 회유하거나 부당하게 접촉할 수 없도록 적절한 보호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어길 경우 가중 처벌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징계기준 개정은 피해 학생 등을 강력하게 보호하고, 가해 교직원들을 보다 세분화해 처벌하려는 데 있다”고 말했다. /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

이기택 대법관 임명제정



이 기 택 (56·14기·사진) 서울 서부지방법원장이다 다음 달 퇴임하는 민일영 (60·10기)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제정됐다.

6일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 법원장을 신임 대법관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제정했다. 앞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이기수)는 지난 4일 이 법원장을 비롯한 3명을 추천한 바 있다. /강영훈기자 kyh@kyeongin.com

날씨 | 7일 금요일 (음력 6월 23일)

모래사장에 새긴 발자국 조금 흐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2~25도, 낮 최고기온은 29~35도의 분포가 되겠다.

인천

미물 09:29 22:12
썰물 03:30 15:56

해돋이 05:41
해질 19:36

달출 -:- 달짐 13:09

백령도 22/29

파주 23/34

의정부 24/34

강화 23/32

서울 25/34

양평 24/35

인천 25/32

수원 24/34

평택 24/35

전국날씨

강릉 24/30
대전 25/35
광주 25/34
대구 25/34
부산 25/31
제주 25/31

강수량

오전 수월
오후 인천
서울
강릉
대전
전주
광주
대구
부산
제주

바다날씨

풍향 풍속 파고

서해 북서~북 4~8 0.5
남해 북동~동 5~9 0.5~1.5
동해 남동~남 5~9 0.5~1.0

오늘 이후 날씨

8일(토) 9일(일) 8일(토) 9일(일)

인천 25/30 24/29 수월 25/33 25/32
서울 26/33 25/32 의정부 25/32 25/31
파주 26/33 25/32 백령도 23/28 22/27

‘자녀면접 특혜’ 교사채용
수원공고 교장 해임 처분

면접관으로 참여해 자신의 자녀를 교사로 채용(경인일보 4월 30일자 22면 보도)한 수원공고 현직 교장이 결국 교단을 떠났다.

6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수원공고 법인 이사회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 5일 이모 교장과 딸에 대해 각각 해임 및 임용취소 처분을 내렸다.

도교육청은 수원공고에 대한 감사를 통해 신규 교사 부당 채용, 교원 채용절차 부적절 등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을 묻어 이 학교 법인 이사장에 대한 임원 취임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도교육청 감사 결과 교장은 지난 1월 철학과목 교사를 채용할 당시 마지막 전형인 3차 면접에서 면접관으로 참석해 자신의 딸을 포함한 지원자 4명을 심사했다. 당시 3차 면접 전까지 최고 점수를 받지 못한 교장의 딸은 교사로 최종 선발됐다.

/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

동물전용호텔서 반려견 다쳐도 책임뭇물어

피해 구제 법적근거 없어

동물 전용 호텔에 맡긴 반려동물이 다치거나 분실돼도 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가 없어 구제를 받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 남구 용현동에 사는 김모(38)씨는 지난달 26일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떠났다. 반려견과 함께 갈 수 있는 숙박시설을 찾지 못한 김씨는 동물 전용 호텔에 반려견을 맡겼다. 그러나 김씨는 휴가 이들

만에 청진벽력같은 소식을 들었다. 호텔 직원들이 퇴근하면서 실수로 문을 열어뒀는데 톱을 타 지난달 27일 새벽, 김씨의 강아지가 달아난 것. 김씨는 “호텔 측이 가족이나 다름없는 강아지를 잃어버려 놓고 찾아주려는 의지가 없었다”며 “호텔 측이 뒤늦게 보상금을 운운하며 돈으로 때우려는 것 같아 더욱 화가 났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의 한 동물 호텔에 고양이를 맡긴 이모(28)씨

는 인터넷 동호회 게시판에 “고양이 발이 파투성이가 됐는데 병원은 ‘이 정도는 보호자가 이해해야 한다’는 식이다”라며 “이런 줄 알았으면 호텔에 맡기는 게 아니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국내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정은 2012년 기준 17.9%로 5가구 중 1가구에 이른다. 동물 관련 산업도 발전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상담 건수만 지

난 2012년 3천245건, 2013년 3천609건에 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는 애완동물 판매업에 한해서만 피해보상 기준이 있을 뿐, 동물 전용 호텔에 대한 책임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는 “반려동물 선진국인 후주는 반려동물 숙박업의 시설과 동물 보호, 책임 등에 대한 기준이 있다”며 “관리 인력과 안전시설에 대한 법적 기준이 있어야 이를 바탕으로 책임 문제도 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REAL GOLF,
REAL PLAYER

캘러웨이 인천구월점
GRAND OPEN

CALLAWAY GRAND OPEN

2015 FALL
NEW ALLIVAL
가을 신상품 입하

Road Map

중부지방 고용노동청 앞 / 빙스 인천예술회관점 맞은편

FLEXIBLE LINE

COLLECTION LINE

ESSENTIAL LINE

Callaway

캘러웨이 인천구월점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51 T. 032-437-2570

델코배터리 판매 유통망 모집

(주)존슨컨트롤즈 델코배터리는 배터리 제조사로 국내외 자동차 메이커 (현대/기아/대우/쌍용, Toyota, Honda, Nissan, Isuzu, Suzuki 등) 에 납품하고 있으며, 국내 4대 보험출동업체 및 SK스피드메이트, GS오��모이시스의 공식 협력사로 한국표준협회 주최 품질 우수성지수 평가(KS-QE)에서 2006년~2014년까지 9년 연속으로 “자동차용 배터리 부문 1위 기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소비자 및 전문가 평가 1위를 획득하여 명실 상부하게 최고의 품질을 인정받은 명품배터리! 그리고, 고객 신뢰로 성장하는 기업 (주)존슨컨트롤즈 델코배터리와 함께 인천지역 시장을 키워 갈 점주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1. 모집지역: 인천광역시

2. 모집부문

구분	모집기준
대리점	▶ 담보제공 및 점포임대 가능자 ※담보 (부동산, 질권, 보증증권 등) ※점포 (15평 이상, 1층 권장) ▶ 배송차량 보유 및 운전면허 소지자 ▶ 관련업종 경험 유무 상관없음
소형특약점	▶ 자동차 관련업종 종사 또는 경력자로 배송차량 보유 및 운전면허 소지자 ▶ 소형특약점 확정시 신원보증증권 제출 필요

3. 접수처: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330(역삼동) 우덕빌딩 11층 (주)존슨컨트롤즈 델코배터리

4. 문의처: 대표전화 02-529-8975
02-3498-0731 / 02-3498-0733

Delkor
델코배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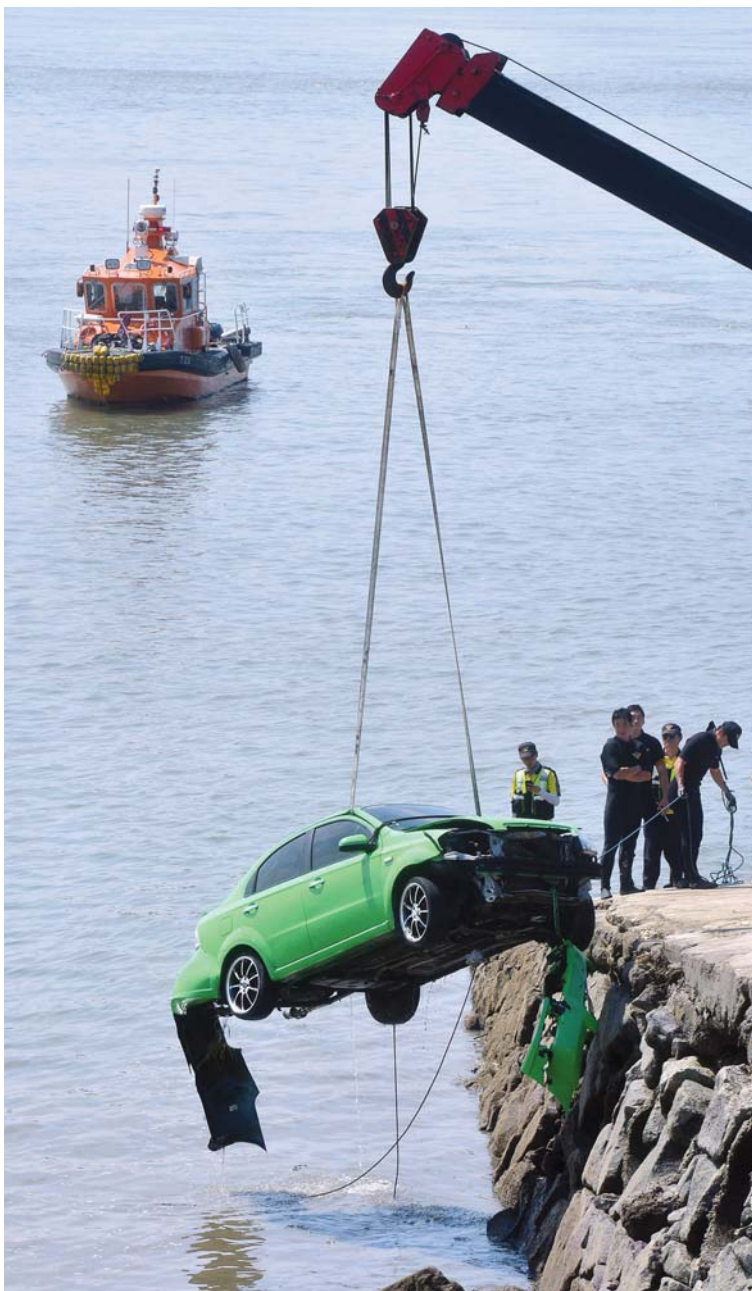
한국품질만족지수
9년 연속 자동차용 배터리 부문 1위

최강 성능

배터리의 제왕... 델코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한국품질만족지수(KS-QE) 조사에서 2006년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9년 연속 자동차용 배터리 부문 1위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Johnson Controls



6일 오후 인천시 중구 월미도 선착장에서 추락한 A(26)씨의 승용차가 인양되고 있다. /임순석기자 sseok@kyeongin.com

월미도 앞바다 또 투신사고

20대 차몰고 뛰어들어 숨겨
올해들어 극단 선택 잇따라

올해들어 월미도 앞바다에서 20대가 투신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6일 오전 10시15분께 중구 월미도 선착장에서 A(26)씨가 ‘자살하겠다’며 차를 몰고 월미도 앞바다로 돌진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경과 소방당국은 잠수 장비를 동원해 수색 작업에 나섰지만 윤씨는 사고 발생 3시간여 만에 차 안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현장 목격자에 따르면 A씨는 선착장으로부터 10여m 가량 떨어진 곳에서 차문을 연 채로 바다를 향해 빠른 속도로 달려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10분께 친

구에게 전화해 “엄마와 말다툼을 하고 나오는 길이며 차와 함께 바다에 뛰어들겠다”고 영상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9시께도 어머니에게 전화해 “자살하겠다”고 알렸다.

해경은 A씨가 투신한 이유를 파악하는 한편 목격자를 상대로 사고 당시 상황을 조사하는 중이다.

지난 달 30일 오후 10시40분께도 월미도 등대 아래 갯바위에서 B(25)씨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결과 B씨의 소지품에서 자살을 암시하는 메모가 발견됐다. B씨는 폐 등을 크게 다쳤지만 다행히 목숨은 건졌다.

지난 1월26일 오전 1시55분께는 ‘월미도에서 자살하려는 사람이 있

다’는 112신고에 따라 경찰이 출동해 C(29)씨를 구조하기도 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반대여론 귀막고 ‘송도 LNG 증설 강행’

시공사 3곳 오늘 선정·발표
“가스공사, 지역 의견 무시”
연수구·주민들 불만 높아져
“市 제지 나서야” 목소리도

한국가스공사가 인천 송도 LNG 저장탱크 증설을 위한 시공사 3곳을 7일 선정해 발표한다. LNG기지 증설을 반대하고 있는 연수구와 지역 주민들은 가스공사가 지역 여론을 무시하고 공사강행을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7일 송도 LNG 저장탱크 3기를 증설할 최종 후보에 오른 시공사 3곳을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공사에서는 20만k㎥ 저장탱크 3기와 부대설비 축조가 이뤄지며 총 공사비는 4천360억원이다. 가스공사는 3곳의 시공사를 상대로 40~50일 동안 심사를 진행한 뒤, 최종 공사업체를 확정할 예정이다.

가스공사는 지난달 연수구가 보안을 요구한 ‘건축허가 및 공작물 축조신고’도 다시 제출할 계획이

다. 당시 구는 지난해 인천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결 조건으로 내세운 강화된 안전기준 적용, LNG기지 주변 지역에 대한 충분한 보상 지원, 지역주민 의견 적극 수렴 등에 대한 서류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류 보완을 촉구했다.

업체 선정을 마친 뒤 연수구에 건출허가와 공작물 축조신고를 제출하면 LNG 증설을 위한 행정 조치는 마무리된다.

가스공사가 공사를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자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초 열린 주민 설명회

가 3차례 무산된 상황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가스공사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송도임주자연합회 박한준 회장은 “가스공사는 주민을 고려하지 않는다. 주민들의 힘만으로 LNG기지 증설을 막기에는 역부족이 됐다”며 “인천시가 본격적으로 증설을 제지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에서도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구 관계자는 “주민설명

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주민여론을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주민들의 동의가 없으면 어떠한 증설 허가도 내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가스공사는 에너지수급 계획에 따라 공사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매년 겨울철이 되면 저장용량이 부족해 공급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다”며 “안전적인 가스공급을 위해서는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김주영기자 kjj86@kyeongin.com

인천 골프 꿈나무, 연습할 곳이 없다

무료 라운딩 지원 고작 1곳
대부분 특정 아카데미 독점
골프장 못구해 타지 원정도

인천지역 골프장들이 지역 청소년 골프 교육생 지원에 인색하다는 지적이다.

인천시골프협회 등에 따르면 현재 인천지역에는 중구 영종도 ‘스카이72골프클럽’을 이용하는 ‘주니어 골프 아카데미’ 30여 곳을 비롯해 부평, 청라, 남동구 등에서 50여 개의 아카데미가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일명 명문으로 불리는 ‘주니어 골프 아카데미’들이 특정 골프장과 계약을 맺고 교육생 연습라운딩을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아카데미는 레슨비, 연습장 사용료, 주 2~3회 9홀 연습라운딩비 명목으로 일반 아카데미에 비

해 2~3배가 넘는 연습생 1명당 월평균 500만~700만원을 받고, 이중 상당 부분을 골프장에 내고 있다.

현재 인천지역 청소년 교육생들에게 무료 라운딩(9홀)을 지원하는 곳은 쓰레기매립지관리공사가 운영하는 ‘드림파크CC’ 한 곳 뿐이다. 그 외 골프장들은 특정 아카데미와 교육을 맺은 교육생 외에는 연습라운딩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골프장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아카데미 소속 교육생들은 정상 요금을 내고 3~4명씩 1개 조를 맞춰 18홀 라운딩을 해야 하는데 예약 자체가 어려운데다, 연습시간을 맞추기도 쉽지 않아 교육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인천시골프협회 관계자는 “다른 시·도에서는 골프전문학교를 유지하고, 지역 골프장들도 함께 나서 지원하고 있다”며 “인천은 청소년 교육생들에 대한 지원이나 관심이

다른 곳에 비해 상당히 열악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연습 골프장을 찾지 못한 상당수 인천지역 교육생들은 라운딩을 무료로 지원하거나 할인해주는 경기도와 전라도 지역 골프장을 찾아 떠나고 있다. 경기도 일부 골프장들은 전국대회 성적 상위 30% 이내 청소년 선수들에게 무료 연습라운딩을 지원하고 있고, 전라도 지역 골프장들은 청소년 교육생에게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주고 교육생 유치에도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카데미 운영 관계자들은 “7~8년 전만 해도 인천 출신 교육생들이 한 해 150명에 이르렀지만 지금은 절반가량이 다른 지역으로 떠났다”며 “굳이 무료나 할인이 아니더라도 청소년 교육생들이 연습할 수 있도록 라운딩 전용 예약제도라도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아쉬워 했다.

/이진호기자 province@kyeongin.com

상사에 양심품고 ‘악성 소문’
공무원 200만원에 약식기소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이성희)는 상급자에 대한 악성 소문을 퍼트린 혐의(명예훼손 등)로 인천 모 구청 계약직 공무원 A(55)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

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 3월까지 같은 부서 상급자 B(56)씨에 대해 “손가락도 없는 주제에 정규직이라고 까불고 있다” “주차단속원 서포터스와 입을 맞추는 등 불륜을 저질렀다”는 소문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업무지적을 몇 자

레 받자 의도적으로 악의적 소문을 퍼뜨렸다”며 “이 때문에 20년 간의 공직생활과 그동안 가정생활에 큰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손안의 뉴스친구 엔시리즈
경인일보 ‘모바일 K’

“인천구치소 직원들이 집단폭행”

40대 벌금 미납자 고소… 구치소측 ‘사실무근’

벌금 미납으로 인천 구치소에 들어갔던 40대 남성이 구치소 직원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벌금 미납자 A(45)씨가 인천구치소 소속 교도관들을 폭행치상 혐의로 고소해 수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고소장에서 “지난달 29일 구치소에 수감된 후 가족들에게 구치소에 있다는 것을 알리려고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자 교도관들이 손을 뒤로 제쳐 수갑을 채운 뒤 집단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최근 A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조만간 구치소의 협조를 얻어 당시 CCTV 등을 확보하고 관련 구치소 직원들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해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이를 납부하지 않아 지명수배된 상태였다. A씨는 지난달 29일 경찰에 붙잡혀 구치소에 인계됐다가 벌금을 내고 풀려났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이 당시 자신을 때린 구치소 직원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기초 조사를 통해 신원을 특정한 뒤 경찰서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구치소 관계자

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해줄 수 있는 게 없다”며 “고소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경인일보의 창간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3의 창학’은 연세가 세계 최고의 명문으로 도약하겠다는 또 하나의 다짐입니다. 사랑과 열정이 가득한 세계적 명문,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써 나가는 곳 연세대학교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꿈에 도전하십시오.

연세대학교 총장 정갑영

YONSEI, where we make *history*.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급 **에이원 모텔! 25개 객실의 현명한 투자전략!** **매**

미래가치를 생각하시고 아름다운 곳에서 직접 운영 하실분을 모집합니다!
☑태안군 도자기 박물관 예정 부지 인근 ☑신진도와 안흥항 남쪽 연륙교 예정

월수입 **800**만원. **8**억원 매매(조정가능).
주인 직접 운영중!!

대규모 도자기 박물관 공사중

에이원 모텔
Aone MOTEL
충남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 신진대교길 75-11(신진도리 441번지)

에이원 모텔에 대해 궁금한 점은 전화주세요.
010-9156-8800



신분당선 동천역 앞! 판교를 품에 안다!

포스코건설이 시공하는 명품 복합단지!



대표번호

1644-7722

생활 · 업무 · 쇼핑이 하나로 뭉친 원스톱 복합단지 - 분당·수지 유타워

교통의 명작 | 신분당선 동천역(2016년 개통예정, 가칭)개통으로 강남까지 20분대! 판교C, 23번국도, 용서고속도로 인접으로 빠른 광역교통망

입지의 명작 | 판교, 분당과 인접하여 신도시의 모든 도심인프라를 쉽고 빠르게 누릴 수 있는 수지의 핵심입지

분당·수지 **U-TOWER** 신분당선 동천역(예정)

시행 : **KB** 부동산신탁

시공 : **posco 포스코건설**

위탁 : (주)동천 **U-TOWER**



현장 및 모델하우스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899번지

■ 지번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899번지 ■ 대지면적 : 16,544.50㎡ ■ 연면적 : 174,357.30㎡ ■ 용도 : 공영지식산업센터, 업무시설, 판매시설 ■ 부동산개발업자 : 케이비부동산신탁(주) ■ 등록번호 : 서울-080129(2006.4.16)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역삼동) ■ 분양승인 : 2013-건축행정과-분양신고-2 ■ 건축규모 : 지하4층, 지상24층, 29층(2개동) ■ 건축허가 : 2013년 1월 11일 ■ 허가번호 : 2013-도시디자인과-신축허가-2 ■ 입주예정일 : 2016년 6월 예정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함 ■ 공급대상물 : 공영지식산업센터, 업무시설, 판매시설 ※ 상기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변 건물 및 지형의 임의로 조정하여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릅니다. ※ 상기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연도형 상가, 입면, 벽체마감, 외부색채, 간판위치, 조경 등은 인 · 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분당선 연장선 동천역(가칭)은 2016년 개통 예정으로 위치, 노선, 구간이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개통시기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